

국 제 지 역 학 석 사 학 위 논 문

## 한국 화교의 정체성 연구

-부산지역 화교사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지 역 학 과

尹 寧

국 제 지 역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 화교의 정체성 연구

-부산지역 화교사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리 단

이 논문을 尹 寧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지 역 학 과

尹 寧

尹寧의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2월 26일



주심 문학박사 김 창 경 인

위원 인류학박사 Nariko Sato 인

위원 정치학박사 리 단 인

# 목 차

|                              |    |
|------------------------------|----|
| <b>제1장 서론</b>                | 1  |
|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검토        | 3  |
| 1. 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  |
| 2. 선행 연구 검토                  | 7  |
|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 10 |
| 1. 연구방법                      | 10 |
| 2. 연구구성                      | 15 |
| <b>제2장 한국의 화교실태와 화교정책</b>    | 17 |
| 제1절 화교의 일반적 고찰               | 17 |
| 1. 화교의 의미                    | 17 |
| 2. 화교의 역사적 발전                | 19 |
| 3. 화교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            | 21 |
| 제2절 한국 화교의 역사적 발전과 분포        | 24 |
| 1. 한국 화교의 역사적 발전             | 24 |
| 2. 한국 화교의 분포                 | 30 |
| 제3절 한국의 화교정책                 | 31 |
| <b>제3장 한국 화교 정체성의 사회적 인식</b> | 36 |
| 제1절 민족 의식                    | 36 |
| 1. 한국 화교간의 친밀감               | 36 |
| 2. 한국 화교의 긍지감                | 37 |

|                                    |    |
|------------------------------------|----|
| 3. 연대성에 대한 인식 .....                | 40 |
| 제2절 소수 민족 인식 .....                 | 41 |
| 1. 한국인과의 관계 .....                  | 41 |
| 2. 타민족과의 결혼 .....                  | 43 |
| 3. 한국 화교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 .....       | 44 |
| 4. 한국의 화교정책 인식 .....               | 47 |
| 제3절 중국·대만의 화교정책 인식 .....           | 49 |
| 1. 중국·대만의 관심도 .....                | 49 |
| 2. 중국·대만의 지원 .....                 | 50 |
| 3. 지원 희망 분야 .....                  | 50 |
| 제4절 국가 인식 .....                    | 51 |
| 1. 이민 계획 .....                     | 51 |
| 2. 국적 .....                        | 54 |
| <b>제4장 한국 화교 정체성의 민족적 특성</b> ..... | 66 |
| 제1절 언어적 동질성 .....                  | 66 |
| 제2절 문화적 동질성 .....                  | 74 |
| <b>제5장 결론</b> .....                | 80 |
| <b>참고문헌</b> .....                  | 84 |
| <b>Abstract</b> .....              | 93 |
| <b>부록</b> .....                    | 96 |

## 표 목 차

|                |    |
|----------------|----|
| <표 1-1>.....   | 11 |
| <표 1-2>.....   | 12 |
| <표 1-3>.....   | 15 |
| <표 2-1-1>..... | 22 |
| <표 2-1-2>..... | 23 |
| <표 2-2-1>..... | 25 |
| <표 2-2-2>..... | 28 |
| <표 2-2-3>..... | 28 |
| <표 2-2-4>..... | 31 |
| <표 2-3-1>..... | 33 |
| <표 3-1-1>..... | 36 |
| <표 3-1-2>..... | 38 |
| <표 3-1-3>..... | 38 |
| <표 3-1-4>..... | 40 |
| <표 3-2-1>..... | 41 |
| <표 3-2-2>..... | 42 |
| <표 3-2-3>..... | 43 |
| <표 3-2-4>..... | 43 |
| <표 3-2-5>..... | 44 |
| <표 3-2-6>..... | 45 |
| <표 3-2-7>..... | 45 |
| <표 3-2-8>..... | 46 |
| <표 3-2-9>..... | 47 |

|                 |    |
|-----------------|----|
| <표 3-2-10>..... | 47 |
| <표 3-3-1>.....  | 49 |
| <표 3-3-2>.....  | 50 |
| <표 3-3-3>.....  | 51 |
| <표 3-4-1>.....  | 51 |
| <표 3-4-2>.....  | 52 |
| <표 3-4-3>.....  | 53 |
| <표 3-4-4>.....  | 54 |
| <표 3-4-5>.....  | 54 |
| <표 3-4-6>.....  | 55 |
| <표 3-4-7>.....  | 57 |
| <표 3-4-8>.....  | 58 |
| <표 3-4-9>.....  | 59 |
| <표 3-4-10>..... | 59 |
| <표 3-4-11>..... | 61 |
| <표 3-4-12>..... | 61 |
| <표 3-4-13>..... | 63 |
| <표 4-1-1>.....  | 66 |
| <표 4-1-2>.....  | 67 |
| <표 4-1-3>.....  | 69 |
| <표 4-1-4>.....  | 70 |
| <표 4-1-5>.....  | 70 |
| <표 4-1-6>.....  | 71 |
| <표 4-1-7>.....  | 72 |
| <표 4-1-8>.....  | 73 |

|                |    |
|----------------|----|
| <표 4-2-1>..... | 74 |
| <표 4-2-2>..... | 75 |
| <표 4-2-3>..... | 75 |
| <표 4-2-4>..... | 76 |
| <표 4-2-5>..... | 78 |





한국 화교의 정체성 연구  
-부산지역 화교사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尹 寧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요약

세계 최다규모의 디아스포라집단인 화인들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 ASEAN국가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경제역량으로 그 위상을 발산하고 있는 반면, 한국화교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심지어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거주국 국적 또는 중국국적을 소유한 여타 국가 화교들과는 달리 한국 화교 대부분은 국적은 대만에, 거주는 한국에, 고향은 중국 대륙에 두고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냉전체제라는 상황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한국 화교들은 국가적 단절과 이데올로기적 갈등 속에서 출신국가인 중국과 멀어졌고, 오히려 대만 국적을 취득하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화교들의 자기들의 고향인 중국 본토에서 새로운 기회구조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국화교들은 여타 지역 화교들에 비해 복잡한 정체성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디아스포라적 시각에서 볼때, 한국 화교들은 시대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특수한 인식과 감각을 공유하면서 거주국의 통제와 억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응, 변화해 왔다. 한국 화교는 ‘한국화(韓國化)된 중국인(中國人)’ 즉, 중국인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거주 또는 영주하고 있다. 그러나 모국의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은 불분명하다. 또한 한국에로의 귀화현상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 획일화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화교들의 이러한 ‘다중적 정체성’은 대체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그들의 디아스포라적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체성의 일반적 이론을 근거로 부산지역 한국화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써 본 논문은 문헌자료 분석과 현지 설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 신문보도 자료를 이 연구의 일차 자료가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의 연구논문과 보고서, 그리고 인터넷자료는 본 연구의 2차 자료가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부산에 거주한 화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 화교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화교의 ‘사회 인식’과 ‘민족 특성’에 초점을 맞춰, ‘민족 의식’ ‘소수민족 의식’ ‘중국·대만의 화

교정책인식' '국가 인식' '언어' '문화'등 문항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표집 이원은 200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각 문항에 따른 응답자의 전체적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백분비(N%)를 산출하였고, 또 각 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화교들은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이들은 높은 긍지감으로 자지고 있다. 또한 한국 화교는 중화민족으로서의 의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소수민족인식 부분에서는 대다수 화교들은 한국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 부산 화교는 한국인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산 화교는 그들의 한국에서의 성공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낮은 성공 가능성이 한국 정부의 화교정책에서 기인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민족정체성의 민족 특성인 언어, 문화 등의 측면에서는 중화민족으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보이고 있으면, 부산 화교는 '중국인'으로써 민족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화교사회가 한국에 오래 정착하게 되면서 화교 3세들은 한국 문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화교들은 문화와 언어 등 민족적 특성에서 중국이나 대만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산 화교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강한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 분석에 따르면, 부산 화교와 한국인의 통혼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산 화교들은 필요에 따라 한국 국적의 취득도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화교 젊은 세대는 한국 사회에 동화되면서 차세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사라지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오늘날까지 중국의 공향을 방문하는 화교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화교 2세들이다. 3세, 4세 화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한국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화교들은 점점 '한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지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화교들의 적응유형은 통합형으로 변할 것이라는 추론을 내리고자 한다. 화교들은 점차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한국화교, 화교, 소수민족, 디아스포라, 정체성, 화교정책>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세계화시대 민족 집단간의 접촉과 교류, 그리고 상호의존은 일상화된 삶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은 세계화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화전략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국가기구의 축소 개편, 시장기능의 활성화, 규제완화 및 철폐, 시장개방 등을 골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화는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선학태 1996).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아직도 소외된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무관심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동질적인 민족 구성과 단일민족의 국가의식을 표방하던 한국사회는 다(多)민족·다(多)문화사회를 구성해 가면서 점차 이질적 소수집단의 모습이 사회적 인식의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시대 한국 사회의 소수집단들에 대한 연구는 글로벌 한국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자못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지구화 시대에 민족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인구이동과 탈영토화된초국가적 공동체 현상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해외로 이주한 ‘이산민족’들은 공동의 종족 정체성을 갖고 상호간은 물론 모국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모국과 거주국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사회과학 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디아스포라(diaspora)<sup>1)</sup>’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디아스포라

’는 한국어로 민족분산(民族分散) 또는 민족이산(民族離散)으로 번역되는데, 단지 한 민족집단 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분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민족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윤인진 2003:102). 지나친 일반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의 성격을 규정하면 주로 ‘민족이산’, ‘다중적 정체성’, 그리고 ‘초국가적 활동’으로 요약된다<sup>2)</sup>.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디아스포라 특유의 ‘다중적 정체성’이다. 왜냐하면 민족이산은 하나의 역사적, 시대적 현상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들로 하여금 이주,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다중적 정체성은 그들이 초국가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

세계 최다규모의 디아스포라집단<sup>3)</sup>인 화인들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 ASEAN<sup>4)</sup>국가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경제역량으로 그 위상을 발산하고 있는 반면, 한국화교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심지어

1)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서 1990년대 들어서 활발해졌는데, 사프란(William Safran, 1991)은 디아스포라를 “국외로 추방된 소수 집단 공동체(expatriate minority communities)”라고 정의했다. 톨리안(T. Tölölian, 1991: 3)은 디아스포라를 “한때 유대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의 분산을 가르쳤던 이 용어는 이제 이주민, 국외로 추방된 난민, 초빙 노동자, 망명자 공동체, 소수 민족 공동체와 같은 용어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어원을 가진 의미”로 정의했다(김귀옥 2000:8-9, 윤인진, “민족분산과 이주의 역사와 현황 - 미주” 재인용).

2) 출처: 임채완의 『글로벌 코리아네트워크』 2006, Safran과 Cohen의 연구 참조할 것

3) 현재 화교는 세계 160여 개국에 3879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76.8%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화인국가 및 지역인 대만, 홍콩, 그리고 마카오를 포함할 경우 화교 총 규모는 6,800만명으로 추정된다. (출처: 『中華民國九十五年僑務統計年報』, 中華民國僑務委員會 2007)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東南—國家聯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967년 8월 8일 설립되었다. 목적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확립이다. 2007년까지 가입국가 11개국이다. 본부소재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이다.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거주국 국적 또는 중국국적을 소유한 여타 국가 화교들과는 달리 한국 화교 대부분의 국적은 대만에, 거주는 한국에, 고향은 중국 대륙에 두고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냉전체제라는 상황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한국 화교들은 국가적 단절과 이데올로기적 갈등 속에서 출신국가인 중국과 멀어졌고, 오히려 대만 국적을 취득하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화교들의 자기들의 고향인 중국 본토에서 새로운 기회구조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국화교들은 여타 지역 화교들에 비해 복잡한 정체성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한국 화교는 ‘한국화(韓國化)된 중국인(中國人)’으로서 한국에서 정주 또는 영주하고 있다. 이들은 모국의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적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최근 한국에로의 귀화현상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중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화교들의 이러한 ‘다중적 정체성’은 대체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그들의 디아스포라적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의 일반적 이론을 근거로 부산지역 한국화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검토

### 1. 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정체성은 개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갖게 되는 대답으로써,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 규정, 혹은 인식이다. 정체성은 '자아의식'과 같은 뜻을 지닌다. 따라서 '집합적인 자아'의 경우,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자아의식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은 사회적 산물이다(홍승직 1994:139).

E.Goffman(1967), J.Habermas(1969) 등의 사회학자들은 이같은 자아 정체성을 개인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J.Ritter/K.Gruender 1976:4, 홍승직 1994:82). 즉 개인적 정체성이란 자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긍정적, 부정적 등의 평가)를 말하며, 후자, 즉 사회적 정체성이란 자아가 지니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일체감, 또는 자아가 속한 어떤 사회집단(예컨대, 가문, 학교, 지역, 민족, 계급 등)에 대한 소속감을 가리킨다. 따라서 '화교의 정체성'에 관해서도 그것을 개인적 정체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보다 집합적인 차원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즉 화교의 정체성은 화교 개개인들의 자아의식과 연대의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다 평균적-집합적인 자아의식과 연대의식을 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체성은 '나 자신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주관적'인 성격을 많이 띠지만 그와 반면에 객관적 성격도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관한 판단과 인식은 일정하게 객관적인 사실, 경험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가치가 바로 정체성인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경험적 요인들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이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도 쉽게 나타난다.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신분에 대한 의식, 신분적인 귀속성, 신

분적인 정체성이 상실되거나 약화되는 것, 외세의 침략에 따라 민족의식과 민족정체성이 형성 되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정체성은 또한 사회적-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되어, 각인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한국인의 민족의식과 민족정체성은 교육제도를 통해, 여성 자녀의 자의식과 정체성은 부모들의 가정교육을 통해 사회적-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왔다. 이는 특히 자아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정체성은 일단 한번 형성되면 시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성격을 갖는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성찰에 소홀하고, 이러한 재성찰의 결과를 자아정체성에 반영하는 데에 소홀했을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이렇게 보면, 정체성이란 결국 주관성, 객관성, 인위성, 지속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단일 민족 국가에서 민족 정체성 (Ethnic Identity)과 국민정체성 (National Identity)은 같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다민족국가에서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국가(Nation)라는 범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동시에 또한 민족 집단의 일원이라는 민족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동질감 혹은 동질성(Identification)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정체성은 또한 타 집단의 동질성에 대하여 차이성 혹은 이질성(Differentiation)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한 집단의 정체성은 동질성과 차이성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임봉길 1994:193).

## 2) 민족정체성의 사회 인식과 민족 특성

민족 정체성은 민족적 고유한 특성들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특정

민족 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 (a sense of belonging)이라고 볼 수 있다(Shibutani and Kwan 1965; Phinney 1990)<sup>5)</sup>. 즉 민족 정체성은 사회 인식과 민족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민족 특성은 종족 · 혈통이나 언어, 종교, 생활방식 등의 문화 같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인식은 개개인들의 소속 의식으로 나타난다. 민족 특성에 있어서 언어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 공동체는 정서와 사고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공동체이며 역사 공동체이기 때문이다(임채완 1999:3). 또한 민족어를 통해 한 민족 집단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 주체성이 세대에 걸쳐 전승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민족어를 어느 정도 잘 하느냐는 민족 문화와 정체성이 세대 간에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임채완 1999:9).

하지만 민족 정체성에 있어 민족 특성이나 사회 인식 중에 어느 한 측면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민족정체성의 민족 특성 측면과 사회 인식 측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족적 · 문화적 동질성이 존재할 때 민족에게 소속의식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 문화나 특성 같은 민족 특성의 요소들은 사회 인식의 요소가 강한 정도만큼 보전 · 유지되는 법이다(정영훈 2002:7).

최근 학계에는 동일한 민족, 모국어, 문화적 및 민족적 애착심 등을 주로 강조하는 인종적 원초주의(primordial approach)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따른 민족 정체성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인종적 상황주의(situational approach)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향이 압도적이다(Lee, Chai-Mun, 2004). 즉 민족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그들 민족 정체성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국가의 민족 정책이 소수 민족에게 어떠한 조건과 상황을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어

---

5) 윤인진, "중앙아시아 한인의 언어와 민족정체성", p.16, 1997, 재인용



떻게 대응하면서 적응하여 생활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 2. 선행 연구 검토

화교는 대만을 포함해서 전 세계 180여 개국에 6천8만 명 이상이 흩어져서 살고 있으며 이중 80%는 아시아에서 살고 있다. 현재 중화경제권의 외환보유고는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화교들의 거주국에서의 경제적 성공, 그리고 모국인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는 1990년대 이후 줄곧 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학자들은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교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화교 해외 이주사, 현황과 발전 추세, 각국 및 지역 화인사회 형성과 발전에 대한 연구, 거주국 및 모국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 글로벌 화교네트워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학계에서는 현재까지 해외화교사회에 대한 무수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화교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이나 북미, 유럽지역에 연구들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과 근접되어 있는 한국이나 일본 화교들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이는 수백, 수천만 규모의 동남아 화인사회에 비교할 때 한국 화교사회의 규모가 작고 경제적 영향력도 대비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것도 있겠지만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한중관계가 90년대까지 단절되어 있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한국 학계의 경우, 세계적인 범위의 화교문제 및 화교네트워크에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화교 연구는 오히려 뚜렷한 연구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1973년에 출간된 고승재의 『한국 이민사 연구』는 특별히 "화교이민 및 한국화교의 현재상황"이란 장을 마련하여 화교이민의 시작, 화교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정책, 화교의 각종 활동에 대해

초보적 연구를 진행하였다(김경국 2002:503).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맞물리면서 한국 화교들에 대한 한국학계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1981년 발표된 박은경의 "화교의 정착과 이동: 한국의 경우"(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는 한국화교가 이미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박은경의 연구는 국내 화교의 형성, 사회조직, 대만으로의 이주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한국화교 연구의 기틀을 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화교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인식적 차이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5년 김기홍의 "재한 화교의 종족성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는 한국화교가 더 이상 '중화민국'의 국민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일부분인 '한국화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화교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의 원인을 기존 연구들처럼 한국화교의 객관적 환경-특히 한국사회의 화교에 대한 정치·경제적 억압요소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한국화교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요소-한국화교의 폐쇄성에서 찾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서 한국화교의 한국사회로의 적극적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김경국 2002:504).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화교집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에서 광범하게 진행되었다. 화교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화교 경제, 화교 교육, 화교 정책, 화교 정체성, 화교 단체, 한국 화교 사회적 지위와 인권, 그리고 화교사 등 영역의 연구들로 구분된다. 화교학교 및 화교 교육에 관한 연구들로는 석미령의 "한국화교 교육에 관한 고찰"(1995), 오심화의 "한국화교 교육의 실태와 전망"(1999)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한국화교사회 존속에 있어서의 화교교육의 가치 및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화교교육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재정은 "한국의 화교

거주지 연구-인천 지역을 중심으로”(1993)을 들수 있는데, 이 연구는 한국 화교들의 주거지 형성과 변화 과정을 문화지리학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화교사회의 변화를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연구로는 곽병곤의 “한·중수교 이후 재한 화교 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2002)를 들수 있다. 이 연구는 한·중수교 이전의 침체된 화교사회의 실태와 한·중수교 이후 변화한 모습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박현옥·박정동의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2003), 조동제의 “한국화교의 현지화와 네트워크구상”(2003) 등은 한국 화교기업의 성장과정 및 경영특성들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아스포라적 시각으로 한국화교의 초국가적 현상 및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곽병곤의 “한·중수교 이후 재한 화교 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2002), 김기호의 “초국가 시대의 이주민 정체성: 한국화교의 경우”(2005)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들은 한·중수교라는 역사적 계기가 화교사회에 미친 영향과 지구화시대 한국 화교들의 초국가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논문들이 비록 다양한 학문적 분야들에서 한국 화교 사회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강한 민족주의정서가 외국인 이주자 집단에 대해 차별적 구조를 강화해왔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연구들은 화교들의 체험과 인식을 통한 내부적 입장에 대한 고찰이나 연구는 빈약한 상태로 남아있다. 초국가적 민족주의 담론과 이주자 정체성 사이의 분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행위자들의 생활 전략, 문화적 상징, 정체성 등에 대한 연구가 자못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대다수가 한국 화교의 이주사,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한화사회에 대한 실

태 연구는 극히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설문조사방법의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화교의 정체성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했다. 본 논문에 포함된 연구 대상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00명 화교였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이뤄진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서울, 인천에 집중했고 부산에 있는 화교에 대해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의 화교 정체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본 논문은 한국 화교 정체성의 지역적 특징과 차이를 밝힐 것이다.

### 제3절 연구 방법

#### 1.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헌자료 분석과 현지 설문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우선 문헌자료 분석에는 중국과 한국정부의 각종 통계자료, 신문보도 특히 <인민일보>와 같은 중국정부의 기관지 보도 자료를 1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의 연구논문과 보고서, 그리고 인터넷자료는 이 논문의 2차자료가 되고 있다.

설문조사는 부산에 거주한 화교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한국 화교의 정체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정체성의 사회인식과 민족소성 특성으로 분류하여 연구문항을 설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문항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1) 설문 문항 구성

<표 1-1> 설문 문항 구성

| 구분        | 주요 문항          | 세부 문항                                                                                                                                                                         | 문항 수 |
|-----------|----------------|-------------------------------------------------------------------------------------------------------------------------------------------------------------------------------|------|
| 정체성의 사회인식 | 민족 의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교간의 친밀감</li> <li>- 화교의 긍지감</li> <li>- 연대성</li> </ul>                                                                                | 3    |
|           | 소수민족 의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과의 관계</li> <li>- 타민족과의 결혼</li> <li>- 화교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인식</li> <li>- 화교정책에 관한 인식</li> </ul>                                           | 4    |
|           | 중국·대만의 화교정책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대만 관심도</li> <li>- 중국, 대만의 지원</li> <li>- 지원 희망 분야</li> </ul>                                                                      | 3    |
|           | 국가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 계획</li> <li>- 귀화하지 않는 이유</li> <li>- 귀화하는 이유</li> <li>- 자녀 귀화에 대한 태도</li> <li>- 중국 국적 취득에 대한 태도</li> <li>- 배우자 민족의 원망</li> </ul>   | 6    |
| 정체성의 민족속성 | 언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어</li> <li>- 중국어 사용 정도</li> <li>- 중국어 실력</li> <li>- 중국어 실력 향상 희망도</li> </ul>                                                       | 4    |
|           | 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음식습관</li> <li>- 중국 전통 명절 유지</li> <li>- 전통적 명절 음식</li> <li>- 주로 시청하는 TV방송</li> <li>-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li> <li>- 스포츠 경기의 응원</li> </ul> | 6    |



이 설문 조사는 2007년 9월 초부터 10월초까지 약 1개월 동안 부산화교 협회,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중·고등학교, 상해거리, 엄궁동 로얄화교아파트, 부경대학교 화교학생과 가족, 부산 남구의 중국집(식당) 등 8개의 곳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의 방식으로 이들 지역의 200명 화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sup>6)</sup>. 수집한 자료는 SPSS10.0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따른 평균 백분비를 산출하였고, 배경변인별로 응답백분비를 분석하였다.

## 2)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본 연구조사대상의 인적 사항은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배경변인별 표집 인원

| 변 인 | 변인구분  | 변인구성비(%)  |
|-----|-------|-----------|
| 연 령 | 10대후반 | 34(17.7)  |
|     | 20대   | 28(14.6)  |
|     | 30대   | 23(12.0)  |
|     | 40대   | 63(32.8)  |
|     | 50대   | 26(13.5)  |
|     | 60대   | 14(7.3)   |
|     | 70대   | 3(1.6)    |
|     | 80대   | 1(0.5)    |
| 성 별 | 남     | 111(55.5) |
|     | 여     | 89(44.5)  |
| 학 력 | 초 등   | 1(0.5)    |
|     | 중 등   | 6(3.0)    |

6)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으로 유입된 중국인을 '신화교'로 '구화교'를 분리한다. '신화교'는 중국 국적을 소지하는 사람이다. 본 논문의 조사 대상에서 '신화교'는 제외되었다.



|          |             |           |
|----------|-------------|-----------|
|          | 고 등         | 101(50.5) |
|          | 대 학         | 88(44.0)  |
|          | 대학원         | 4(2.0)    |
|          | 학 생         | 53(26.5)  |
|          | 교 사         | 22(11.0)  |
|          | 사업자,상인      | 69(34.5)  |
|          | 회사원,직원      | 9(4.5)    |
| 직 업      | 요식업 종업원     | 14(7.0)   |
|          | 약사, 의사      | 5(2.5)    |
|          | 기술자         | 1(0.5)    |
|          | 주부, 무직      | 25(12.5)  |
|          | 기 타         | 2(1.0)    |
|          | 화교학교        | 191(95.5) |
| 다닌 학교 유형 | 한국화교        | 3(1.5)    |
|          | 기타(외국인학교 등) | 6(3.0)    |
|          | 대만          | 6(3.0)    |
| 원 적      | 산동성         | 189(94.5) |
|          | 기타          | 5(2.5)    |

#### (1) 연령

조사대상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 86세이고 나이가 제일 어린 경우 16세였다. 연령 분포는 10대 17.5%(35명), 20대 15%(30명), 30대 12.5%(25명), 40대 33%(66명), 50대 13%(26명), 60대 7%(14명), 70대 이상이 2%(4명)를 차지했다. 40대가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다(<표1-2>참조).

#### (2) 성별

성별 구성으로는 남성은 111명으로 전체 대상의 55.5%를 차지하고 여성은 89명으로 전체 대상의 45.5%를 차지하고 있었다(<표1-2>참조).

### (3) 학력

학력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0.5%, 중학교 3%, 고등학교 50.5%, 대학교 4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대학교는 대학 졸업과 현재 재학 중인 경우 모두 포함하였다. 그리고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2%(4명)를 차지했다<sup>7)</sup>(<표1-2>참조).

### (4) 직업

연구대상자들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학생 53명(26.5%), 교사 21명(10.5%)로 나타났으며, 사업자·상인 69명(34.5%), 회사원·직원 9명(4.5%), 요식업 종업원 14명(7.0%), 약사·의사 5명 2.5%(약사 2.0%, 한의사 0.5%)를 차지하였다. 또한 기술자 1명(0.5%), 주부·무직 25명(12.5%), 기타 2명(1.0%)로 구성되어 있었다.

### (5) 학교 유형

조사대상자들이 다닌 학교 유형을 보면 (<표 1-2>참조) 화교학교 95.5%, 한국학교 출신이 1.5%, 기타 학교출신(외국인학교 등)이 3%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화교들의 절대 다수는 화교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를 살펴보면 한국 53.3%, 대만 45.7%, 중국

7) 화교 학력에 대한 연령별 반응 분포는 아래와 같다.

| 연 령 \ 학 력 | 초등     | 중등     | 고등        | 대학       | 석사     | 박사     | 합계         |
|-----------|--------|--------|-----------|----------|--------|--------|------------|
| 10대       |        |        | 35(17.5)  |          |        |        | 35(17.5)   |
| 20대       |        |        | 4(2.0)    | 26(13.0) |        |        | 30(15.0)   |
| 30대       |        |        | 10(5.0)   | 14(7.0)  |        | 1(0.5) | 25(12.5)   |
| 40대       |        | 1(0.5) | 34(17.0)  | 29(14.5) | 2(1.0) |        | 66(33.0)   |
| 50대       |        | 1(0.5) | 13(6.5)   | 12(6.0)  |        |        | 26(13.0)   |
| 60대       |        | 2(1.0) | 5(2.5)    | 6(3.0)   | 1(0.5) |        | 14(7.0)    |
| 70대       |        | 2(1.0) |           | 1(0.5)   |        |        | 3(1.5)     |
| 80대       | 1(0.5) |        |           |          |        |        | 1(0.5)     |
| 합 계       | 1(0.5) | 6(3.0) | 101(50.5) | 88(44.0) | 3(1.5) | 1(0.5) | 200(100.0) |

1.1%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학원의 경우 네 명이 전부 한국에 있는 대학원을 다녔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배경편인별 표집 인원의 대학 소재

| 변 인 | 대 학<br>변인구분 | 대 만      | 한 국      | 중 국    | 기 타  | 합계(%)     |
|-----|-------------|----------|----------|--------|------|-----------|
| 연령별 | 20대         | 1.1      | 27.2     | 1.1    |      | 28.3      |
|     | 30대         | 9.8      | 6.5      |        |      | 16.3      |
|     | 40대         | 21.7     | 10.9     |        |      | 33.7      |
|     | 50대         | 6.5      | 6.5      |        |      | 13.0      |
|     | 60대         | 5.4      | 2.2      |        |      | 7.6       |
|     | 70대         | 1.1      |          |        |      | 1.1       |
| 성 별 | 남           | 33.7     | 33.7     | 1.1    |      | 67.4      |
|     | 여           | 12.0     | 19.6     |        |      | 32.6      |
| 교육별 | 대학          | 42.4     | 52.2     | 1.1    |      | 95.7      |
|     | 석사          | 2.2      | 1.1      |        |      | 3.3       |
|     | 박사          | 1.1      |          |        |      | 1.1       |
|     | 합계(%)       | 42(45.7) | 49(53.3) | 1(1.1) | 0(0) | 92(100.0) |

#### (6) 원적

원적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94.5%는 산동성으로 나타났고, 대만과 기타지역에 원적지를 두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각각 3.0%, 2.5%로 나타났다(<표 1-2>참조). 이번 조사 응답자가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또한 원적지가 거의 산동성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 2. 연구구성

제1장에서는 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이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전체 논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설명을 위한 것으로, 주로 한국 화교실태와 화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화교의 의미, 화교의 역사적 발전, 규모와 분포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진행하고 한국 화교의 역사적 발전과 분포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화교정책과 화교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고 특히 한국 정부의 대화교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화교정책 변화의 근본적 계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은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 화교의 사회 인식 정체성에 대해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한국 화교 정체성의 민족 특성, 즉 언어적 동질성과 문화적 동질성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화교 정체성의 특징과 지역별 차별성을 밝힐 것이다.



## 제2장 한국의 화교실태와 화교정책

### 제1절 화교의 일반적 고찰

#### 1. 화교의 의미

중국 정부에 의하며, 華僑(Overseas Chinese)는 중국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中國公民'이다. 즉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 국적을 소유한 중국인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사실 화교의 개념을 간단하게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화교를 설명할 때에는 협의적, 광의적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어느 거주국에서나 중국 국적을 가진 채 해외에 임시로 살고 있는 중국인을 화교라 하며, 단지 일시적으로만 나라를 떠나 있으며 언젠가는 중국으로 되돌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중국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인을 화인으로 지칭하여 협의의 개념인 화교와 구별하기도 한다. 국적을 중심으로 화교와 화인을 엄밀히 구분하는 이중국적을 중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화교, 현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국的高유문화, 생활 습관(Chineseness)을 유지한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화인으로 구별하고 있다(이덕훈 2005).

일반적으로 '화교'는 문자 그대로 '화'와 '교'가 합쳐진 것이다. 그 뜻을 살펴보면, '화'는 중국의 '화하' 즉 한족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것은 곧 '중화'를 뜻하고, 중화는 중국인들의 자칭명칭이다. 中은 "중앙에 위치한다"는

뜻이고 華는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문화적 우월의식을 가진 한족 자신을 스스로 높여 부르기 위함이다(김기홍 1995:22). 그리고 '僑'는 "僑居(객지생활) 혹은 僑寓(임시의 주거)"를 말하는 '교'로서(이민호, 전개논문 주 1번 참조)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머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의 화교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을 소지한 중국국민(僑居國外具有中華人民共和國國籍的中國公民)" (孫廣華 1989) 혹은 "외국에서 정착하여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在外國定居但具有中國國籍的自然人)" (喬偉 1985) 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다른 용어인 "華人"와 "華裔"<sup>8)</sup> 그리고 "華商"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華人(Ethnic Chinese)은 중국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화인은 二重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 혈통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통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華族人을 가리키는 것이다. 華裔는 중국인의 후예, 즉 화교와 화인의 후손으로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이 그 거주국의 국적을 선택하였다면 화예가 되는 것이다(이재유 2006:68-69). 華商은 화교는 물론 화인 가운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국계 상인을 의미하는 말이다. 최근에는 '세계화상대회'에 참여하는 중국계의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기업인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만과 홍콩 그리고 마카오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있다. 중국은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화교나 화인이라 부르지 않고 동포라 부르고 있다. 이는 중국이

8) 예컨대, 旅美華人·美籍華人是 미국에서 살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사람이 다. 美籍華裔는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의 후예라면 '미국의 중국인 후예'라고 불린다.



대한, 홍콩, 마카오 지역을 정치적 입장에서 자국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등 국외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 2. 화교의 역사적 발전

역사적으로 보면 화교 발생의 연혁에 관하여는 여러 설이 있으나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즉 당말(唐末)에서 오대(五代)·북송·남송의 시대에 걸쳐서 빈발된 북방민족의 침입·전란 때문에 화난[華南] 방면으로 이동해간 한(漢)민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남천민족(南遷民族)은 4세기부터 이미 '교인(僑人)'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생활난에 쫓겨 광둥[廣東]이나 푸젠[福建]에서 바다를 건너 남방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이 동남아시아 화교의 원조가 되었다. 15세기 명(明)나라 때 이후 화교의 이주는 동남아 일대로 확산되었고, 각지의 새로운 환경하에서 전통문화의 유지를 위한 상호부조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였다<sup>10)</sup>. 이 시기 중국인의 해외 이주는 남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상품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이에 따른 대외무역의 왕성한 발전으로 중국 상인들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지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인의 해외 이주는 주로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으로 이루어졌다. 16세기 후반까지 수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성호 2004:30-45).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동남아 식민정책 발전에 따라 화교의 지위와 역할은 점차 향상하였으며, 네덜란드는 중국이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개척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타이완·필리핀·자바 등지에 화교의 유출이

9) 魏艾, "중국의 화교정책과 해외화인의 경제협력" 「중소연구」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제 20권1호, 1996, p16, 이재유 2006 재임용

10) 출처: <http://kin.naver.com/knowhow> "한국의 화교(역사,구조,분포,국적문제,화교은행등)" 2006년09월11일

증대하였는데, 18세기에는 도처에서 화교박해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여 중국인전쟁이 빈발하였다<sup>11)</sup>.

19세기에는 말레이반도에 유력한 몇몇 화교왕국이 구축되어 궁쓰라는 이름의 자치체로서 세력을 떨치기도 하였다. 1819년 영국이 싱가포르 개발에 주력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쿠리<sup>12)</sup> 무역시대[苦力貿易時代], 즉 중국 하층 노동자의 대량이민시대를 맞이하여 화교노동자군이 홍수처럼 도처에 밀어닥쳤다. 1840년 아편전쟁 전까지 동으로는 일본과 조선, 서로는 인도, 남으로는 인도네시아, 북으로는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1백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명대말기로부터 아편전쟁까지 약 3백년간 수십만 에서 1백만 전후에 머물렀던 해외이주 중국인들의 수는 그 후 19세기중엽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 1879년에 300만명, 1899년에 400만명, 1905년 760만명, 1921년 860만명, 1931년 1,283만명 등으로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50년 간에 4배정도 증가했다(조정남 1998:44).

아편전쟁 이후 반식민지·봉건사회의 모순과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제국주의의 경제적 약탈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압박과 아편전쟁의 패배로 맺은 조약 등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화공(華工)<sup>13)</sup>들의 출국을 정식으로 인정하면서 중국인의 해외 이주는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1949년까지 중국인의 해외 이주는 1000만 명이나 이르게 되었다. 그들의 활동범위 또한 아시아에서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대서양주 등으로 확산되어 오늘날 화교가 전 세계에 거주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은 중단되

---

11) 위와 같다

12) 쿠리: 영어는 coolie혹은 cooly이다.

13) 華工: 중국인 노동자

었다. 당시 중국인들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합법적으로 이민을 추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현지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부터 실시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의 이민정책 확대와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인의 해외이주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화인 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자연적 번창으로 인해 해외 화교의 수는 여전히 증가하였다(이재유·허여호 2006). 그런데 이번의 새로운 중국인들의 이동은 중국대륙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만, 홍콩 등지의 중국계 인구가 전면적인 이동을 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고, 오래전부터 동남아에 정착해 있던 중국계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의 재이민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조정남 1998:48).

신화교의 움직임은 과거 중국인들의 해외진출과는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거와는 달리 이들은 대개 해외에서 유학을 한 후 그 자리에 눌러앉아 생활하거나 또는 해외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또 보다 유리한 경제환경을 찾는 '투자이민', '상업이민' 등이 대종이며 이들은 또 전적으로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외국행이라고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들이 택하는 이민 대상국도 하나같이 부유한 나라들이며 가난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들의 학력도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이민 전의 경제적 상태도 좋은 편이다. 이들의 주요 진출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 등이다(조정남 1998:48).

### 3. 화교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

"대만화교교무위원회"로 『中華民國九十五年僑務統計年報』<sup>14)</sup>에 따르면

---

14) 대만은 쑨원이 신해 혁명으로 중화민국을 설립한 해를 자신들의 원년으로 삼는 중화민국력(국민력)을 채택하고 있다. 이 국민력에 따르면 민국 95년은 2006년이 된다.

대만·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세계화교인구는 6,771만 명으로 추정된다. 대만(2,282.3만명)·홍콩(694.3만명)·마카오(43.9만명) 등 지역을 제외한 세계화교 인구는 2006년 말까지 3,879.4만 명이고 160개 이상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 국적을 여전히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이 가운데 2백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화인'들로 이들이 전체 해외 중국계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표 2-1-1>).

언어별로 볼 때 해외 화교중에는 푸젠어 사용자가 3500만명으로 가장 많고, 광둥어 2,000만명, 커자어(客家語) 600만명, 북경 중심의 보통화 500만명 등이다(정성호 2004).

<표 2-1-1> 대륙별 화교와 화인의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년도   | 총 계             | 아주지역             | 미주지역            | 유럽지역           | 대양주 지역       | 아프리카 지역      |
|------|-----------------|------------------|-----------------|----------------|--------------|--------------|
| 1994 | 37,144<br>(100) | 31,752<br>(85.5) | 3,975<br>(10.7) | 869<br>(2.3)   | 432<br>(1.2) | 115<br>(0.3) |
| 1997 | 33,238<br>(100) | 26,912<br>(81.0) | 4,730<br>(14.2) | 938<br>(2.8)   | 535<br>(1.6) | 123<br>(0.4) |
| 2000 | 35,045<br>(100) | 27,363<br>(78.1) | 5,959<br>(17.0) | 977<br>(2.8)   | 631<br>(1.8) | 137<br>(0.4) |
| 2004 | 38,083<br>(100) | 29,344<br>(77.1) | 6,807<br>(17.9) | 1,003<br>(2.6) | 775<br>(2.0) | 154<br>(0.4) |
| 2006 | 38,794<br>(100) | 29,803<br>(76.8) | 6,931<br>(17.9) | 1,039<br>(2.7) | 866<br>(2.2) | 155<br>(0.4) |

자료출처: 『中華民國九十五年僑務統計年報』 中華民國僑務委員會

<http://www.ocac.gov.tw>

화교와 화인의 해외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지역에 77.05%, 미주지역에 17.87%, 유럽에 2.63%, 대양주에 2.03%, 그리고 아프리카지역에 0.4%가 거주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 화교와 화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는 지

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생활환경이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주지역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화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이다. 이곳에는 백만 명 이상의 화교가 살고 있다(<표2-1-2> 참조).

<표 2-1-2> 아시아 주요국가의 화교와 화인분포(2006년 말까지)

(단위: 천명/%)

| 지역    | 인수     |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각주에서 차지하는 비중(%) | 거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
|-------|--------|-----------------|-----------------|------------------|
| 아시아   | 29,803 | 76.8            | 100             | --               |
| 인도네시아 | 7,671  | 19.8            | 25.7            | 3.08             |
| 태국    | 7,100  | 18.3            | 23.8            | 11.08            |
| 말레이시아 | 6,254  | 16.1            | 21.0            | 25.53            |
| 싱가포르  | 2,713  | 7.0             | 9.1             | 59.89            |
| 월남    | 1,293  | 3.3             | 4.3             | 1.49             |
| 필리핀   | 1,167  | 3.0             | 3.9             | 1.30             |
| 미얀마   | 1,112  | 2.9             | 3.7             | 2.54             |
| 일본    | 561    | 1.4             | 1.9             | 0.38             |
| 기타    | 1,932  | 5.0             | 6.5             | --               |

자료출처: 『中華民國九十五年僑務統計年報』 中華民國僑務委員會

<http://www.ocac.gov.tw>

아시아 지역 중에 화교·화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인구수는 767만 이며 세계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은 710만, 말레이시아는 625만 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싱가포르는 271.3만, 월남은 129.3만, 필리핀은 116.7만, 미얀마는 111.2만 일본은 56.1만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 제2절 한국 화교의 역사적 발전과 분포

### 1. 한국 화교의 역사적 발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화교들은 "한화", "한국 화교", "재한 화교", "대만계 중국인", '구화교', "전재한 화교", "거주자격을 소지한 대만인",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화교", "국내거주재한 화교", "대만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하는 등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조차도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박상순 2001:7). 한국 화교는 대부분 중국 산둥성 출신이지만 냉전 때문에 대만 국적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으로 유입된 중국인을 '신화교'로 '구화교'와 구별한다.

한국 화교의 정착 시기에 대해서는 19세기말 壬午軍亂 발발과 더불어 청나라에서 들어온 군인과 상인들로 보는 설, 그리고 1882년 이후 인천 조계지를 중심으로 거주하게 된 상인들을 최초로 보는 설 등이 있다. 당시 화교수는 23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양필승·이정희 2004). 1898년에 산둥성 지역에서 義和團의 亂이 발생하여 그 후에 군벌정치가 시작되면서 전란을 피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땅과 일을 찾아 고향을 떠났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로 들어왔다. 그때부터 한반도에 이주하는 중국인의 수가 급증하였다.



<표 2-2-1> 일본전쟁의 한국화교 인구의 추이

(단위: 명)

| 연 도  | 인 구    | 연 도  | 인 구    |
|------|--------|------|--------|
| 1911 | 11,837 | 1931 | 36,778 |
| 1916 | 16,904 | 1935 | 57,639 |
| 1920 | 23,989 | 1940 | 63,976 |
| 1925 | 46,196 | 1942 | 82,661 |
| 1930 | 67,794 | 1945 | 62,248 |

출처: 박상순 2001:23 "제한중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만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2-2-1>에서 알 수 있듯이, 1911년 11,837명에 불과하였던 중국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12년 15,517명, 1914년 16,884명, 1916년 16,904명, 1918년 21,894명, 1920년 23,989명, 그리고 1922년에는 30,826명에 달하였다. 1925년에는 46,196명으로, 이어 1930년에는 무려 67,794명까지 증가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시켰고 1910년 8월 한일합방 후 화교의 지위에 큰 변화가 생겼다. 1916년 10월에는 화교의 거주지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서구 열강 상인을 고려하여 화상의 상업 활동에 자유를 많이 부여하여 화교 경제는 여전히 발전했다. 조선의 면포 수입액을 영국산과 일본산으로 분류했다. 화상이 조선에 가져다 준 것은 중국산 삼베와 비단이었다. 1913-1920년 사이 조선에 수출한 삼베가 중국 전체 삼베 수출액의 70%에 이르렀다. 화상은 이들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국내의 주단, 포목점을 통해 판매하였다(양필승·이정희 2004:32-36).

1926년 화교 전체 인구 중 상업 종사자 수는 전체 인구의 52%이다. 조선의 화교 사회는 상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화교의 상업은 언급했듯이 주단, 포목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배경 아래 중화요리점이

한국 전국 각지에 생겨났다. 화교의 경제력 신장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였다. 조선총독부는 화교 경제의 융성이 조선인뿐 아니라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화교관은 화교 경제 탄압의 전조였다. 조선 최대의 화상인 담결생<sup>15)</sup>의 죽음은 화교 경제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조종이었다(양필승·이정희 2004:48).

그러다가 1931년 만주사변과 '만보산사건'<sup>16)</sup> 및 1937년에 발발한 중·일 전쟁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환하는 중국인이 많았다. 이 시기는 한국 화교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표2-2-1>에서 보면 1932년부터 중국인들은 國共內戰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야기되자 전란을 피하여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1935년에는 57,639명으로 증가하였다. 1940년에는 63,976명으로, 1941년에는 73,274명으로, 그리고 1942년에는 한국화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82,661명으로 그 숫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중국인의 한국유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꺾이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1945년에는 62,248명으로 그 숫자가 감소하였다(박상순 2001:24).

15) 담결생(譚傑生, 1853~1929): 광동성 출신의 담결생은 동순태(同順泰) 무역회사를 세운하여 188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조선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화상이다. 동순태의 서울 본점이 1923년 말 화재로 전부 타 버렸다. 그 후 쇠퇴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929년 생을 마감한다(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2004, p47-48, 참조).

16) 1931년 7월 2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현[長春縣] 만보산지역에서 일제의 술책으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이 벌인 유혈사태. 일본 관동군은 이 사건을 조작하여 조선의 한 신문에 과대·과장 보도하게 했다. 한국 화교 배척 사건은 이러한 기사들이 보도된 후 한국 전국 주요도시에서 잇따라 일어났다. 화교와 조선인간 충돌이 많이 발생했다. 화교의 요리집, 이발소, 떡집이 습격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화교 3,200명이다. 화교들이 사망 127명, 부상 400명이다. 화교배척 사건을 피해 중국으로 돌아간 화교는 많이 있다.(출처:www.naver.com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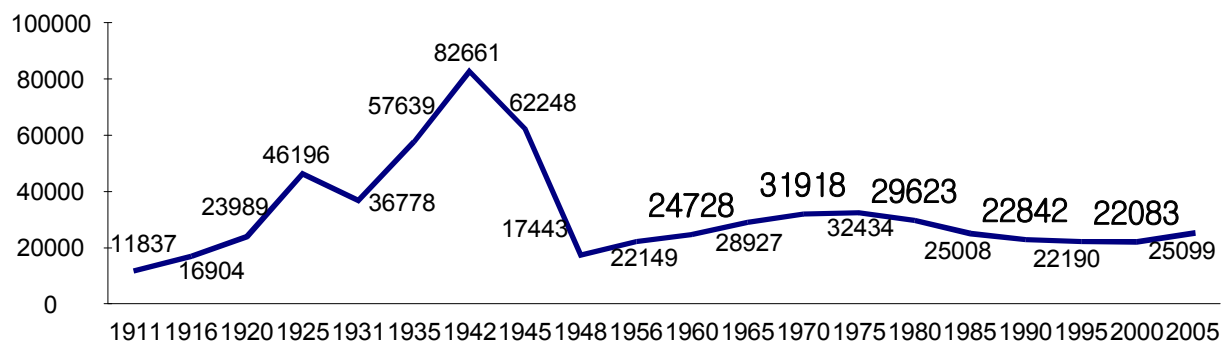
1945년 해방직후 62,248명에 달하였던 한국화교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 말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화교는 17,443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북한지역의 중국인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통계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해방 공간에서 화교 무역업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화교 경제가 활기를 되찾았고 화교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화교 경제의 활황으로 실업률이 낮아졌다. 1948년 말 현재 인천지역 화교 701호 중 호주가 실업자인 주택은 한 집도 없었다. 해방 직후 화교 경제는 무역회사를 중심으로 음식점과 잡화상을 날개로 비상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양필승·이정희 2004:65).

1949년에 한국에 중화민국대사관이 설치되자 한국 화교는 자연스럽게 중화민국국민이 되었다. 이 당시 중화민국(대만정부)은 중국을 대표하는 唯一合法政府로서 국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화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국 화교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한국 화교의 호경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을 피하여 다시 중국으로 귀환하는 화교가 상당수 있었다. 이 시기에 한국에 거주하던 화교는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통계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해방직후부터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체통계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오직 한국의 화교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해방 전까지만 하여도 62,000여명에 달하던 한국 화교가 불과 3년만에 17,000여명으로 감소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박상순 2001:27).

<표 2-2-2> 한국 화교의 근 백년 인구 변화도



<표 2-2-3> 해방 후 화교 인구의 추이 (단위: 명)

| 연도   | 인구     | 연도   | 인구     | 연도   | 인구     | 연도   | 인구     |
|------|--------|------|--------|------|--------|------|--------|
| 1948 | 17,443 | 1965 | 28,927 | 1978 | 30,562 | 1990 | 22,842 |
| 1949 | 21,885 | 1966 | 29,939 | 1979 | 30,078 | 1991 | 22,631 |
| 1952 | 17,678 | 1968 | 30,810 | 1980 | 29,623 | 1992 | 22,563 |
| 1953 | 21,058 | 1969 | 31,243 | 1981 | 29,220 | 1993 | 22,485 |
| 1954 | 22,090 | 1970 | 31,918 | 1982 | 28,717 | 1994 | 22,271 |
| 1956 | 22,149 | 1971 | 32,605 | 1983 | 27,131 | 1995 | 22,190 |
| 1957 | 22,734 | 1972 | 32,989 | 1984 | 27,662 | 1996 | 22,157 |
| 1959 | 23,318 | 1973 | 32,841 | 1985 | 25,008 | 1997 | 22,137 |
| 1960 | 24,723 | 1974 | 32,255 | 1986 | 23,432 | 1998 | 21,987 |
| 1961 | 23,976 | 1975 | 32,434 | 1987 | 24,512 | 2000 | 22,083 |
| 1962 | 23,575 | 1976 | 32,436 | 1988 | 24,098 | 2001 | 22,791 |
| 1964 | 26,176 | 1977 | 31,751 | 1989 | 23,417 | 2005 | 25,099 |

출처: 양필승·이정희, 2004:91,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표 2-2-3>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948년 17,443명이었고 1952년까지 4년 동안 겨우 1.4% 증가한 17,678명에 불과하였다. 1960년에는 24,723명으로, 1965년에는 28,927명으로, 이어 1970년도에는 34,599명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63년 3월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재한중국인에게 영주권에 준하는 거주자격이 부여되는 등 법적지위가 비로소 확고해졌다. 이 때를 전후하여 한국정부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자 투자 유치 문호개방 등 여러 가지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 힘입어 오랜 우방이었던 중화민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는 그만큼 활발하였고, 그 결과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인구유입이 시작되어 1970년도까지 매년 한국 화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박상순 2001: 27-28).

1970년대 미국의 이민정책의 변화로 아시아·중남미 지역의 국민에게도 이민문호가 대폭 개방되었다. 화교는 한국 정부의 불평등 정책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에 거주하지 않던 화교가 재 이민하였다. 가장 많이 간 곳은 미국과 대만이었다<sup>17)</sup>. 그 결과 한국에서 화교는 1970년대 초부터 화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1971년에 32,605명으로 감소하였고, 1975년에는 32,434명으로, 1980년에는 29,623명으로, 1985년에는 25,008명으로 줄어들었다. 1986년까지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화교가 경영하는 음식점은 1,300개에 달해 같은 해 한국 화교 음식점 수를 앞질렀다(박은경 1986:286). 1988년 한국 화교 수는 24,098명, 그리고 1990년에는 22,842명 이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1992년에 와서 멈추게 됐다.

한국 정부는 1992년 8월 23일 중화민국과 단교를 선언하고 8월 24일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1992년 한국과 중국간의 국교 수립 때까지 한국으로의 중국인 유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간 국교 수립 후 중국 대륙에서 건너오는 중국인은 매년

17) 해외 거주 한국 화교의 수는 한국 거주 한국 화교 수를 능가한다. 미국에 1만5천여 명, 대만에 1만여 명, 일본에 6,000여 명, 그 외의 지역까지 합하면 3만 명을 훨씬 넘는다. 현재 한국 거주 화교가 25099 명(2005년)보다 1만여 명 더 많은 인구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출처: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pp.92)



증가하고 있었고 이들을 '신화교'로 불러 구화교와 구분시켰다.

2003년 7월 30일 한국 화교는 서울에서 제8회 세계화상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 대회와 한국 개최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 중화총상회는 광둥성과 복건성 등 남방 출신 화상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산둥성 출신이 많은 한국 화상과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이 한국 화상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앞으로 한국 화상과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었다(양필승·이정희 2004:111).

2005년까지 한국출입관리국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등록되어 있는 대만국적을 가진 중국인 수는 25,099명이었는데 이는 1985년 이래 20년 동안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였다.

## 2. 한국 화교의 분포

한국 화교의 분포는 중국 산둥성 출신이 9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하북성 출신이 약 3%, 동북지역 출신은 약2%를 이룬다. 해외 화인의 주류를 형성하는 광둥 출신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그 외 호북, 산서, 절강, 귀주, 사천 지역 출신이 얼마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현옥·박정동 2003:23). 한국 화교사회 구성원 원적지역의 비율이 90%정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한국 화교의 큰 특징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을 가리켜 재한화교 혹은 화교라고 하는데 이는 "거주자격을 소지한 대만인" 혹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화교"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한국 화교의 숫자는 25,09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 거주



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표2-2-4>참조). 남자와 여자는 각각 12,244, 10,455명으로 나타났다.

<표 2-2-4> 한국 화교 지역 분포 (2002년)

단위: 인(%)

| 도 시 | 화교의 인구     | 도 시          | 화교의 인구  |
|-----|------------|--------------|---------|
| 서 울 | 8,938(39%) | 강 원          | 604(3%) |
| 인 천 | 2,923(13%) | 대 전          | 551(3%) |
| 경 기 | 2,253(10%) | 경 북          | 547(2%) |
| 부 산 | 1,947(9%)  | 경 남          | 432(2%) |
| 대 구 | 1,031(5%)  | 광 주          | 374(2%) |
| 충 남 | 761(3%)    | 울 산          | 317(1%) |
| 전 북 | 712(3%)    | 전 남          | 292(1%) |
| 충 북 | 710(3%)    | 제 주          | 289(1%) |
| 합 계 |            | 22,699(100%) |         |

출처: 법무부([www.moj.go.kr/immi](http://www.moj.go.kr/immi))

### 제3절 한국의 화교정책

화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배타성을 띠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당시 한국정부의 화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과 제재는 한국 화교사회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해방 후 한국 화교들이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한국 정부의 불공평한 정책 때문에 대부분의 화교들이 점점 쇠락하였다. 1950년대 한국 정부의 <창고 봉쇄 조치> 또한 <외국인에 대한 외환 규제법>의 시행은 화교 무역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외국인에 대한 외환 규제법>이 시

행되면서 이들은 공식 환율보다 서너 배 비싼 암시장을 통해 외환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많은 화교 무역상들이 한국인과 공동 명의의 회사를 세우기도 하였으나 동업자간의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장수현 2001).

제3공화국 시기에 이르러 한국 화교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졌다. 1962년에 시행된 <통화개혁법>은 현금 보유량이 많았던 화교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같은 시기 시행된 <토지구제법>도 화교경제의 몰락을 가속화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완전히 금지시킨 것으로, 화교들은 집과 토지를 전부 빼앗길 위기에 처하였다. 외국인 토지법은 1968년 개정되어,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거 목적으로는 2백 평, 상업용으로는 50평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었다.

그 때부터 화교들은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여 아내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기도 하였고 한국인 친구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아내나 친구의 배신으로 재산을 완전히 날려 버렸고, 그 때문에 70년대부터 한국 화교들은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많이 생겼다.

197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경제국방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음식업에 대해 인정과세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흥음식세<sup>18)</sup> 부담도 상당히 컸다. 부동산을 보유한 화교는 그 세금이 더욱 무거워졌고, 임대경영을 하던 화교는 소유주가 임대소득세를 인상을 화교에게 전가하면서 역시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중국음식에 대한 가격 인상 제한이라든가 중국음식점에 대한 밥 판매 금지 등과 같은 특정 시기의

18) 유흥음식세(유흥세)[遊興飲食稅]: <법률> 요릿집·음식점·호텔·무도장 따위에서의 유흥이나 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던 간접세. 1977년에 부가 가치세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차별적 조치들과 함께 화교들 사이에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표 2-3-1>은 역대 한국 정부 화교에 대한 규제 정책이다.

<표 2-3-1> 화교에 대한 주요 규제정책

| 시기        | 내용                                  | 비고                                          |
|-----------|-------------------------------------|---------------------------------------------|
| 1948년     | 외국인에 대한 출입규제<br>외국인에 대한 외환규제        | 화교의 신규 이주 금지<br>화교의 무역거래비용 상승               |
| 1950년     | 창고봉쇄조치                              | 현물을 대량 보관하던 화교무역업에 타격                       |
| 1961년     | 외국인토지소유 금지                          | 한국인의 명의로 등록,<br>소유권분쟁 야기                    |
| 1962년     | 통화개혁                                | 대량의 현금 보유 화교에 타격                            |
| 1968년     | 주택용 200평, 상업용 50평 이내에서 외국인의 토지소유 허용 |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증식에서 소외                  |
| 1970년대    | 짜장면값 동결, 인정과세 실시<br>중국음식점 쌀밥 판매 금지  | 화교 경영 중국음식점의 수익성 악화 (쌀밥 판매 금지는 바로 해제)       |
| 1950~90년대 | 귀화 억제 정책                            |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                      |
| 1950~90년대 | 화교학교를 임의 단체로 분류                     | 화교의 취업과 진학에 불리 (1999년 "각종 학교로서의 외국인학교"로 인정) |

제출: 박현옥 · 박정동 2003:75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IDI연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1992년 한국 정부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단교 직전 대만 대사가 한국 외무부 관계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중국과 수교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던 점이 외교적인 기술이 아니라 기만이였다고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 여전히 대만국적과 대만여권을 지니고 있던 한국 화교는 한국과 대만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박현옥 2003:74-75).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겪은 후,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화교 역시 50평 이상의 상점, 200평 이상의 토지도 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화교들의 희망이 실현되었다. 1998년에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의 시행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화교들의 재산 보유와 증식을 가로막던 큰 걸림돌 치웠다. 한국 화교의 토지 소유문제와 영주자격제도에 대해 2002년도 다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면서 화교들의 법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었다.

한국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외국인은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통하지 않고는 한국인이 될 수 없었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 한국인이 경우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다.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31호로 전면 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새로운 국적법은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 원칙을 채택하였다. 한국인 모와 재한중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 화교는 일반적으로 F-2비자를 가지고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다. F-2 비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래 F-2비자를 받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매 3년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1997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1998년 6월부터 5년으로 늘어났다. 2002년 4월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F-2 비자를 가진 장기체류 외국인 가운데만 5년 이상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과 해

당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F-5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주 자격 취득자는 정기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고,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부동산 거래·금융거래·취학 등에서 한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금년 상반기까지 8천여 명의 화교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체류하고 있다. 영주 자격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자동적으로 유지되는데, 1년 이상 한국을 떠나 있는 경우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안영도 2001:72).

1997년 국적법의 양계혈통주의 채택과 귀화의 용이, 1998년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철폐, 2002년 영주권 제도 도입, 2005년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부여 등 1990년대 말부터 외국인에 대한 법적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 그 시발점은 IMF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서 이지 만 결과적으로 한국 화교 사회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것은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전체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화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있다. 또한 화교의 법적 지위, 경제적 환경과 같은 여러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화교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차별과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제3장 한국 화교 정체성의 사회적 인식

### 제1절 민족 의식

#### 1. 한국 화교간의 친밀감

화교간의 친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귀하는 한국 내 화교간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가깝게 지낸다'는 비율은 21.0%,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낸다' 비율은 54.5%,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비율은 17.0%, '전혀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비율은 0%, '모르겠다(무응답)' 비율은 7.5%였다(<표 3-1-1> 참조).

<표 3-1-1> 화교간의 친밀감

| N%           | 반응구분       |               |                |                |           |
|--------------|------------|---------------|----------------|----------------|-----------|
|              | 매우 가깝게 지낸다 |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낸다 |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 전혀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 모르겠다(무응답) |
| 200<br>(100) | 42(21.0)   | 109(54.5)     | 34(17.0)       | 0(0)           | 15(7.5)   |

화교를 사이에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7.0%에 그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75.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응답으로 미루어 볼 때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조건 중 하나인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한국 화교 사회에서 아직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9)</sup>



## 2. 한국 화교의 긍지감

민족의 혈연적 공통성 및 자긍심은 언어, 풍속 및 심리적 일체감 등 민족문화의 특성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며 뿌리 깊은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임채완·김경학 2002:254). 연구대상자들에게 중화민족으로서 어느 정도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3-1-2 참조).

19) 부산 화교간의 친밀감에 대한 연령별, 성별, 교육별, 직업별 반응 분포는 아래와 같다.

| 변인  | 변인구분     | 반응구분(%)    |               |                |                |           |            |
|-----|----------|------------|---------------|----------------|----------------|-----------|------------|
|     |          | 매우 가깝게 지낸다 |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낸다 |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 전혀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 모르겠다(무응답) | 합 계        |
| 연령  | 10대 후반   | 5(2.5)     | 19(9.5)       | 3(1.5)         |                | 8(4.0)    | 35(17.5)   |
|     | 20대      | 1(0.5)     | 19(9.5)       | 7(3.5)         |                | 3(1.5)    | 30(15.0)   |
|     | 30대      | 4(2.0)     | 12(6.0)       | 7(3.5)         |                | 2(1.0)    | 25(12.5)   |
|     | 40대      | 19(9.5)    | 36(18.0)      | 9(4.5)         |                | 2(1.0)    | 66(33.0)   |
|     | 50대      | 4(2.0)     | 16(8.0)       | 6(3.0)         |                |           | 26(13.0)   |
|     | 60대      | 6(3.0)     | 6(3.0)        | 2(1.0)         |                |           | 14(7.0)    |
|     | 70대      | 3(1.5)     |               |                |                |           | 3(1.5)     |
|     | 80대      |            | 1(0.5)        |                |                |           | 1(0.5)     |
| 성별  | 남        | 30(15.0)   | 55(27.5)      | 21(10.5)       |                | 5(2.5)    | 111(55.5)  |
|     | 여        | 12(6.0)    | 54(27.0)      | 13(6.5)        |                | 10(5.0)   | 89(44.5)   |
| 교육별 | 초        |            | 1(0.5)        |                |                |           | 1(0.5)     |
|     | 중        | 3(1.5)     |               | 2(1.0)         |                | 1(0.5)    | 6(3.0)     |
|     | 고        | 17(8.5)    | 62(31.0)      | 12(6.0)        |                | 10(5.0)   | 101(50.5)  |
|     | 대학원      | 20(10.0)   | 44(22.0)      | 20(10.0)       |                | 4(2.0)    | 88(44.0)   |
| 직업별 | 대학원      | 2(1.0)     | 2(1.0)        |                |                |           | 4(2.0)     |
|     | 학 생      | 6(3.0)     | 29(14.5)      | 9(4.5)         |                | 9(4.5)    | 53(26.5)   |
|     | 교 사      | 5(2.5)     | 11(5.5)       | 5(2.5)         |                | 1(0.5)    | 22(11.0)   |
|     | 사업자, 상인  | 20(10.0)   | 33(16.5)      | 15(7.5)        |                | 1(0.5)    | 69(34.5)   |
|     | 회사원, 직원  | 2(1.0)     | 5(2.5)        | 1(0.5)         |                | 1(0.5)    | 9(4.5)     |
|     | 요식업, 종업원 | 2(1.0)     | 7(3.5)        | 4(2.0)         |                | 1(0.5)    | 14(7.0)    |
|     | 약사, 의사   | 1(0.5)     | 4(2.0)        |                |                |           | 5(2.5)     |
|     | 기술자      |            | 1(0.5)        |                |                |           | 1(0.5)     |
|     | 주부, 무직   | 5(2.5)     | 18(9.0)       |                |                | 2(1.0)    | 25(12.5)   |
|     | 기 타      | 1(0.5)     | 1(0.5)        |                |                |           | 2(1.0)     |
| 합 계 |          | 42(21.0)   | 109(54.5)     | 34(17.0)       |                | 15(7.5)   | 200(100.0) |

<표 3-1-2> 부산 화교의 긍지감

| N%           | 반응구분           |                  |                 |                 |            |
|--------------|----------------|------------------|-----------------|-----------------|------------|
|              |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있다 | 어느 정도 긍지를 가지고 있다 | 별로 긍지를 갖고 있지 않다 | 전혀 긍지를 갖고 있지 않다 | 모르겠다 (무응답) |
| 200<br>(100) | 55(27.5)       | 93(46.5)         | 31(15.5)        | 2(1.0)          | 19(9.5)    |

<표 3-1-2>에세 제시한 바와 같이 27.5%의 부산 화교는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느 정도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반응 비율은 46.5%였다. 따라서 긍정적 응답은 74%를 차지하였다. 이와 반대로 '별로 긍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15.5%이며, '전혀 긍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1.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정적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화교들은 화교로서의 높은 긍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3> 부산 화교의 긍지감에 대한 연령별, 성별, 교육별, 직업별 반응 분포

| 변인  | 변인구분  | 반응구분(%)    |               |                |                |            |          |
|-----|-------|------------|---------------|----------------|----------------|------------|----------|
|     |       | 매우 가깝게 지낸다 |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낸다 |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 전혀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 모르겠다 (무응답) | 합 계      |
| 연령별 | 10대후반 | 3(1.5)     | 17(8.5)       | 4(2.0)         |                | 11(5.5)    | 35(17.5) |
|     | 20대   | 4(2.0)     | 11(5.5)       | 12(6.0)        | 1(0.5)         | 2(1.0)     | 30(15.0) |
|     | 30대   | 5(2.5)     | 13(6.5)       | 5(2.5)         |                | 2(1.0)     | 25(12.5) |
|     | 40대   | 24(12.0)   | 31(15.5)      | 6(3.0)         | 1(0.5)         | 4(2.0)     | 66(33.0) |
|     | 50대   | 8(4.0)     | 14(7.0)       | 4(2.0)         |                |            | 26(13.0) |
|     | 60대   | 7(3.5)     | 7(3.5)        |                |                |            | 14(7.0)  |
|     | 70대   | 3(1.5)     |               |                |                |            | 3(1.5)   |

|             |         |          |          |          |        |         |            |
|-------------|---------|----------|----------|----------|--------|---------|------------|
|             | 80대     | 1(0.5)   |          |          |        |         | 1(0.5)     |
| 성<br>별      | 남       | 36(18.0) | 47(23.5) | 18(9.0)  | 1(0.5) | 9(4.5)  | 111(55.5)  |
|             | 여       | 19(9.5)  | 46(23.0) | 13(6.5)  | 1(0.5) | 10(5.0) | 89(44.5)   |
| 교<br>육<br>별 | 초 등     | 1(0.5)   |          |          |        |         | 1(0.5)     |
|             | 중 등     | 3(1.5)   | 2(1.0)   |          |        | 1(0.5)  | 6(3.0)     |
|             | 고 등     | 22(11.0) | 54(27.0) | 10(5.0)  |        | 15(7.5) | 101(50.5)  |
|             | 대 학     | 28(14.0) | 34(17.0) | 21(10.5) | 2(1.0) | 3(1.5)  | 88(44.0)   |
|             | 대학원     | 1(0.5)   | 3(1.5)   |          |        |         | 4(2.0)     |
| 직<br>업<br>별 | 학 생     | 5(2.5)   | 23(11.5) | 12(6.0)  | 1(0.5) | 12(6.0) | 53(26.5)   |
|             | 교 사     | 7(3.5)   | 12(6.0)  | 2(1.0)   |        | 1(0.5)  | 22(11.0)   |
|             | 사업자, 상인 | 25(12.5) | 29(14.5) | 11(5.5)  |        | 4(2.0)  | 69(34.5)   |
|             | 회사원, 직원 | 3(1.5)   | 4(2.0)   | 2(1.0)   |        |         | 9(4.5)     |
|             | 요식업 종업원 | 3(1.5)   | 5(2.5)   | 4(2.0)   | 1(0.5) | 1(0.5)  | 14(7.0)    |
|             | 약사, 의사  | 1(0.5)   | 4(2.0)   |          |        |         | 5(2.5)     |
|             | 기술자     |          | 1(0.5)   |          |        |         | 1(0.5)     |
|             | 주부, 무직  | 9(4.5)   | 15(7.5)  |          |        | 1(0.5)  | 25(12.5)   |
|             | 기 타     | 2(1.0)   |          |          |        |         | 2(1.0)     |
|             | 합 계     | 55(27.5) | 93(46.5) | 31(15.5) | 2(1.0) | 19(9.5) | 200(100.0)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00%로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50대 84.6%, 40대 83.4%, 30대 72%, 10대 후반 57.2%, 20대 50%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74.7%)과 여성(73%)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육별로는 대학원, 중학교이하 100%, 고등학교 75.3%, 대학교 70.4%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약사·의사, 기술자, 주부와 기타 100%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 86.3%, 사업자 78.2%, 회사원 77.7%, 요식업 종업원 57.1, 학생 52.8%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 한국 화교들은 1, 2세대 화교보다 중화민족으로서 긍지감이 낮다. 또한 사회지위와 직업은 화교들의 긍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업이 좋을수록 긍지감도 높아졌다.

자료 분석을 통한 부산 화교의 친밀감, 긍지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친밀감은 개인배경 변인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깝게 지낸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75.5%인 반면,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7.0%에 그침으로써 부산 화교들 간에 높은 친밀감을 보였다. 또한 부산 화교로서의 긍지감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74%인데 반해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16.5%로 대부분의 부산 화교들은 화교로서의 높은 긍지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대성에 대한 인식

<표 3-1-4> 부산 화교의 연대성

| N%           | 반응구분     |          |          |         |         |
|--------------|----------|----------|----------|---------|---------|
|              | 민족의식     | 언어       | 동일지역 거주  | 관습      | 기타      |
| 200<br>(100) | 73(36.5) | 64(32.0) | 33(16.5) | 12(6.0) | 18(9.0) |

한국 화교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가장 많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민족의식'(36.5%)을 꼽았으며, 그밖에 '언어'(32.0%), '동일지역 거주'(16.5%), '기타'(9.0%), '관습'(6.0%)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3-1-4>참조).

## 제2절 소수 민족 인식

이 절에서는 부산 화교가 한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과의 관계 및 타민족과의 결혼, 성공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 1. 한국인과의 관계

화교와 한국인과의 관계를 알아본 질문에서 응답자의 76%가 한국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불편하다는 부정적 응답은 17.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산 화교는 한국인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3-2-1>참조).

<표 3-2-1> 한국인과 관계

| N%           | 반응구분       |             |             |            |               |
|--------------|------------|-------------|-------------|------------|---------------|
|              | 매우<br>원만하다 | 대체로<br>원만하다 | 대체로<br>불편하다 | 매우<br>불편하다 | 모르겠다<br>(무응답) |
| 200<br>(100) | 31(15.5)   | 121(60.5)   | 34(17.0)    | 1(0.5)     | 13(6.5)       |

개인 배경변인별로 볼 때, 연령별로는 40대는 86.4%, 학력별로는 대학 76.2%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 이상(70대는 33.3%, 60대는 28.6%, 50대는 30.8%)의 부정적 응답은 40대 이하(40대는 12.1%, 30대는 20%, 20대는 13.3%, 10대후반은 14.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75.7%, 여성은 76.4%로 남성과 여성사이의 긍정적 응답 비율

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약사·의사 100%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사업자·상인 88.4%도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교사의 경우는 45.5%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요식업 종업원이 28.6%로 뒤를 이었다.

<표 3-2-2> 부산 화교의 한국인과 관계에 대한 연령별 반응 분포

| 변인      | 변인구분    | 반응구분(%)    |             |             |            |               |            |
|---------|---------|------------|-------------|-------------|------------|---------------|------------|
|         |         | 매우<br>원만하다 | 대체로<br>원만하다 | 대체로<br>불편하다 | 매우<br>불편하다 | 모르겠다<br>(무응답) | 합 계        |
| 연령      | 10대 후반  | 4(2.0)     | 17(8.5)     | 4(2.0)      | 1(0.5)     | 9(4.5)        | 35(17.5)   |
|         | 20대     | 7(3.5)     | 17(4.5)     | 4(2.0)      |            | 2(1.0)        | 30(15.0)   |
|         | 30대     | 4(2.0)     | 15(7.5)     | 5(2.5)      |            | 1(0.5)        | 25(12.5)   |
|         | 40대     | 12(6.0)    | 45(22.5)    | 8(4.0)      |            | 1(0.5)        | 66(33.0)   |
|         | 50대     | 3(1.5)     | 15(7.5)     | 8(4.0)      |            |               | 26(13.0)   |
|         | 60대     | 1(0.5)     | 9(4.5)      | 4(2.0)      |            |               | 14(7.0)    |
|         | 70대     |            | 2(1.0)      | 1(0.5)      |            |               | 3(1.5)     |
|         | 80대     |            | 1(0.5)      |             |            |               | 1(0.5)     |
| 직업<br>별 | 학 생     | 10(5.0)    | 26(13.0)    | 6(3.0)      | 1(0.5)     | 10(5.0)       | 53(26.5)   |
|         | 교 사     | 1(0.5)     | 10(5.0)     | 10(5.0)     |            | 1(0.5)        | 22(11.0)   |
|         | 사업자, 상인 | 14(7.0)    | 47(23.5)    | 8(4.0)      |            | 4(2.0)        | 69(34.5)   |
|         | 회사원, 직원 |            | 6(3.0)      | 2(1.0)      |            |               | 9(4.5)     |
|         | 요식업 종업원 | 1(0.5)     | 8(4.0)      | 4(2.0)      |            | 1(0.5)        | 14(7.0)    |
|         | 약사, 의사  | 1(0.5)     | 4(2.0)      |             |            |               | 5(2.5)     |
|         | 기술자     |            | 1(0.5)      |             |            |               | 1(0.5)     |
|         | 주부, 무직  | 3(1.5)     | 19(9.5)     | 3(1.5)      |            | 1(0.5)        | 25(12.5)   |
|         | 기 타     | 1(0.5)     |             | 1(0.5)      |            |               | 2(1.0)     |
| 합 계     |         | 31(15.5)   | 121(60.5)   | 34(17.0)    | 1(0.5)     | 13(6.5)       | 200(100.0) |

한국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대상으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들의 반수 이상이 '한국이 화교를 차별 대우하기 때문에'(54.3%)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서로 문화교류 기회가 적어서



'(17.1%), '화교들이 한국에 동화하지 못하기 때문에'(14.3%)와 '서로의 민족감정이 달라서'(14.3%)라는 응답이 차지하였다(<표 3-2-3>참조).

<표 3-2-3> 한국인과의 관계가 불편한 이유

| N%          | 반응구분                |                           |               |                 |      |
|-------------|---------------------|---------------------------|---------------|-----------------|------|
|             | 한국이 화교를 차별 대우하기 때문에 | 화교들이 한국에 동화(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 서로의 민족감정이 달라서 | 서로 문화교류 기회가 적어서 | 기 타  |
| 35<br>(100) | 19(54.3)            | 5(14.3)                   | 5(14.3)       | 6(17.1)         | 0(0) |

## 2. 타민족과의 결혼

화교와 타민족과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타민족과의 결혼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9%만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타민족과의 결혼을 찬성하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4> 참조).

<표 3-2-4> 타민족과의 결혼 여부

| N%          | 반응구분     |           |          |         |            |
|-------------|----------|-----------|----------|---------|------------|
|             | 매우 찬성한다  | 대체로 찬성한다  | 대체로 반대한다 | 매우 반대한다 | 모르겠다 (무응답) |
| 35<br>(100) | 41(20.5) | 125(62.5) | 12(6.0)  | 6(3.0)  | 16(8.0)    |

변인별로는 30대가 100%, 20대가 90%, 40대가 81.8%가 높은 찬성 의사를 나타낸 반면 50대 이상은 반대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49%로 여성(33.5%)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주부·무직 20%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사 13.6%가 다음순으로 나타났다. 기술자 100%와 사업자·상인 85.5%은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표3-2-4> 참조).

<표 3-2-5> 한국 화교의 타민족과의 결혼 여부에 대한 연령별, 성별, 교육별, 직업별 반응 분포

| 변인 | 변인구분   | 반응구분(%)  |           |          |         |            |            |
|----|--------|----------|-----------|----------|---------|------------|------------|
|    |        | 매우 찬성한다  | 대체로 찬성한다  | 대체로 반대한다 | 매우 반대한다 | 모르겠다 (무응답) | 합 계        |
| 연령 | 10대 후반 | 12(6.0)  | 15(7.5)   | 1(0.5)   |         | 7(3.5)     | 35(17.5)   |
|    | 20대    | 8(4.0)   | 19(9.5)   | 1(0.5)   |         | 2(1.0)     | 30(15.0)   |
|    | 30대    | 5(2.5)   | 20(10.0)  |          |         |            | 25(12.5)   |
|    | 40대    | 12(6.0)  | 42(21.0)  | 4(2.0)   | 5(2.5)  | 3(1.5)     | 66(33.0)   |
|    | 50대    | 3(1.5)   | 17(8.5)   | 2(1.0)   | 1(0.5)  | 3(1.5)     | 26(13.0)   |
|    | 60대    |          | 11(5.5)   | 3(1.5)   |         |            | 14(7.0)    |
|    | 70대    |          | 1(0.5)    | 1(0.5)   |         | 1(0.5)     | 3(1.5)     |
|    | 80대    | 1(0.5)   |           |          |         |            | 1(0.5)     |
| 성별 | 남      | 26(13.0) | 72(36.0)  | 4(2.0)   | 3(1.5)  | 6(3.0)     | 111(55.5)  |
|    | 여      | 15(7.5)  | 53(26.5)  | 8(4.0)   | 3(1.5)  | 10(5.0)    | 89(44.5)   |
|    | 합 계    | 41(20.5) | 125(62.5) | 12(6.0)  | 6(3.0)  | 16(8.0)    | 200(100.0) |

### 3. 한국 화교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

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인지 알아본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62%)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다'(30.5%)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아 부산 화교의 대부분은 그들의 성공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표 3-2-6> 참조).

<표 3-2-6> 부산 화교 성공 가능성

| N%           | 반응구분   |          |           |           |            |
|--------------|--------|----------|-----------|-----------|------------|
|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모르겠다 (무응답) |
| 200<br>(100) | 7(3.5) | 54(27.0) | 105(52.5) | 19(9.5)   | 15(7.5)    |

<표 3-2-7> 보면 연령별로는 '10대 후반' '그렇다'(45.7%)의 비율이 '그렇지 않다'(31.5%)는 비율보다 높았고 1/3의 학생이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30대'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렇다'는 비율이 높았다. '40대'(63.7%)를 제외하면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70%를 초과하였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직업별로는 '회사원, 직원' 88.9%, '사업자, 상인' 75.4%, '주부, 무직' 7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2-7> 성공에 대한 부산 화교의 연령별, 직업별 인식 반응 분포

| 변인  | 변인구분    | 반응구분(%) |         |          |           |            |          |
|-----|---------|---------|---------|----------|-----------|------------|----------|
|     |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모르겠다 (무응답) | 합 계      |
| 연령별 | 10대후반   | 4(2.0)  | 12(6.0) | 10(5.0)  | 1(0.5)    | 8(4.0)     | 35(17.5) |
|     | 20대     | 1(0.5)  | 8(4.0)  | 13(6.5)  | 6(3.0)    | 2(1.0)     | 30(15.0) |
|     | 30대     |         | 7(3.5)  | 15(7.5)  | 3(1.5)    |            | 25(12.5) |
|     | 40대     |         | 19(9.5) | 38(19.0) | 4(2.0)    | 5(2.5)     | 66(33.0) |
|     | 50대     | 1(0.5)  | 7(3.5)  | 15(7.5)  | 3(1.5)    |            | 26(13.0) |
|     | 60대     | 1(0.5)  | 1(0.5)  | 11(5.5)  | 1(0.5)    |            | 14(7.0)  |
|     | 70대     |         |         | 2(1.0)   | 1(0.5)    |            | 3(1.5)   |
|     | 80대     |         |         | 1(0.5)   |           |            | 1(0.5)   |
| 직업별 | 학 생     | 5(2.5)  | 19(9.5) | 17(8.5)  | 3(1.5)    | 9(4.5)     | 53(26.5) |
|     | 교 사     | 1(0.5)  | 7(3.5)  | 13(6.5)  |           | 1(0.5)     | 22(11.0) |
|     | 사업자, 상인 |         | 13(6.5) | 42(21.0) | 10(5.0)   | 4(2.0)     | 69(34.5) |

|         |        |          |           |         |         |            |
|---------|--------|----------|-----------|---------|---------|------------|
| 회사원, 직원 |        | 1(0.5)   | 5(2.5)    | 3(1.5)  |         | 9(4.5)     |
| 요식업 종업원 | 1(0.5) | 4(2.0)   | 9(4.5)    |         |         | 14(7.0)    |
| 약사, 의사  |        | 1(0.5)   | 3(1.5)    |         | 1(0.5)  | 5(2.5)     |
| 기술자     |        | 1(0.5)   |           |         |         | 1(0.5)     |
| 주부, 무직  |        | 7(3.5)   | 15(7.5)   | 3(1.5)  |         | 25(12.5)   |
| 기 타     |        | 1(0.5)   | 1(0.5)    |         |         | 2(1.0)     |
| 합 계     | 7(3.5) | 54(27.0) | 105(52.5) | 19(9.5) | 15(7.5) | 200(100.0) |

한국에서의 성공가능성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은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한국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2.6%, '화교들의 능력과 교육열 때문에' 전체의 27.9%, '화교사회의 단결과 상호협력 때문에' 전체의 16.4%, '기타'가 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인간관계'와 '성격'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3-2-8> 참조).

<표 3-2-8>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

| N%          | 반응구분               |                  |                    |         |
|-------------|--------------------|------------------|--------------------|---------|
|             | 한국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 화교들의 능력과 교육열 때문에 | 화교사회의 단결과 상호협력 때문에 | 기타      |
| 61<br>(100) | 26(42.6)           | 17(27.9)         | 10(16.4)           | 8(13.1) |

한국에서의 성공가능성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은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한국사회가 화교들을 차별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전체의 62.1%, '화교들의 능력, 교육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가 전체의 25.0%, '기타'가 8.1%, '화교사회의 단결과 상호협력의 기회가 부족하므로'라는 응답이 4.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2-9> 참조).

<표 3-2-9>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 N%           | 반응구분                      |                                 |                                 |         |
|--------------|---------------------------|---------------------------------|---------------------------------|---------|
|              | 한국사회가<br>화교들을 차별하기<br>때문에 | 화교들의 능력,<br>교육과 준비가<br>부족하기 때문에 | 화교사회의 단결과<br>상호협력의 기회가<br>부족하므로 | 기타      |
| 124<br>(100) | 77(62.1)                  | 31(25.0)                        | 6(4.8)                          | 10(8.1) |

#### 4. 한국의 화교정책 인식

한국 화교들이 한국 정부의 화교정책에 대한 평가를 파악한 결과 '화교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응답한 사람이 98명, 49.0%로 거의 반수를 차지하였다. 한국 정부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별 대우를 하지만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7.0%였다. '기타'와 '화교 사회 발전을 촉진하였다'에 대한 응답은 각각 8.0%와 6.0%에 불과하였다. '기타'를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중에 “한국 정부가 재외 교포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노력하지만 한국에 있는 화교 등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인식 한 화교도 있었다(<표 3-2-10> 참조).

<표 3-2-10> 부산의 화교정책에 대해 평가

| N%           | 반응구분                |                        |                                       |         |
|--------------|---------------------|------------------------|---------------------------------------|---------|
|              | 화교 사회 발전을<br>촉진 하였다 | 화교에 대한 차별<br>대우를 하고 있다 | 차별 대우를 하지만<br>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br>발전하고 있다 | 기타      |
| 200<br>(100) | 12(6.0)             | 98(49.0)               | 74(37.0)                              | 16(8.0) |

연구대상자들이 한국에서 당하거나 알고 있는 차별 대우를 기술하는 질문에서 대부분 응답자들은 취업, 승진과 관련하여 차별대우를 경험했다고 하였다. 교육, 은행, 상업적인 서비스, 공공기관에서도 차별대우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없고, 한국 대학 특정 학과(사범대, 의대 등)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 등 외국인이 입학할 수 없는 교육기관의 존재를 차별의 예로 꼽았다. 또한 은행서비스 부문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응답이 많았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 한국 사람보다 절차가 과정이 어렵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며, 어느 곳에서는 은행 서류를 작성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 대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신규 신청 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조건이 까다롭고,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은행 직불 카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사용시 불편하다. 해외송금을 할 때 인터넷으로 처리가 안 된다. 상업적인 서비스는 주로 인터넷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사이트 가입시, 외국인 등록증을 스캔하거나 팩스로 보낸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휴대폰 가입 또한 어렵다. 핸드폰을 신규 신청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증인이나 보증금을 더 요구한다. 휴대폰 우대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 화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복지는 반대인데 그 예로 화교 노인은 지하철을 타면 우대받지 못한다. 한국 국적인 장애인은 혜택을 받지만 화교 장애인은 아무런 장애인 혜택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 제3절 중국·대만의 화교정책 인식

중국은 한국 화교들의 원적지이고 대만은 그들이 국가라고 생각하는 곳이다. 제3절에서는 한국 화교의 중국·대만에 대한 관심도, 지원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살펴보고, 지원 희망 분야를 분석할 것이다.

#### 1. 중국·대만의 관심도

중국·대만정부가 한국 화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3-3-1>와 같다.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37.5와 36.0),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33.5와 33.0), '모르겠다'(14.5와 14.5),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9.0와 10.5),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5.5와 6.0)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와 대만 정부가 한국 화교에 대해 가지는 관심 정도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3-1> 중국·대만의 관심도

| N%   |              | 반응구분         |                 |                 |                 |            |
|------|--------------|--------------|-----------------|-----------------|-----------------|------------|
|      |              |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 |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 모르겠다 (무응답) |
| 중국정부 | 200<br>(100) | 11(5.5)      | 67(33.5)        | 75(37.5)        | 18(9.0)         | 29(14.5)   |
| 대만정부 | 200<br>(100) | 12(6.0)      | 66(33.0)        | 72(36.0)        | 21(10.5)        | 29(14.5)   |

## 2. 중국·대만의 지원

중국·대만 정부의 지원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서는 '지원하고 있다'(21.0%와 40%)는 긍정적 응답이 '지원하고 있지 않다'(55.0%와 43%)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원하고 있다'는 응답 중에는 대만 정부가 중국 정부보다 지원 비율이 더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표 3-3-2> 참조).

<표 3-3-2> 중국·대만의 지원

| N%   |              | 반응구분       |               |               |               |            |
|------|--------------|------------|---------------|---------------|---------------|------------|
|      |              | 많이 지원하고 있다 |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 | 별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 |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 | 모르겠다 (무응답) |
| 중국정부 | 200<br>(100) | 4(2.0)     | 38(19.0)      | 82(41.0)      | 28(14.0)      | 48(24.0)   |
| 대만정부 | 200<br>(100) | 4(2.0)     | 76(38.0)      | 76(38.0)      | 10(5.0)       | 34(17.0)   |

부산 화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92년 이전에는 대만 정부가 화교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지원이 점차 감소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 설문에 참여한 부산화교협회 근무자는 대만 정부가 요즘에는 지원을 많이 하지 않고 화교 학교에 대한 지원도 감소추세이다. 중국 정부의 부산영사관의 지원은 학교의 책까지였다고 말했다.

## 3. 지원 희망 분야

한국 화교가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국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은 알아본 결과 '화교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라는 응답이 43.5%정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화교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철폐'가 21.0%와 '이중국적 허용'이 12.5%, 그리고 '자유로운 취업과 투자기회 보장'이 9.0%로 나타났다(<표 3-3-3> 참조).

<표 3-3-3> 지원 희망 분야

| N%           | 반응구분       |                        |            |                                   |                             |                            |         |
|--------------|------------|------------------------|------------|-----------------------------------|-----------------------------|----------------------------|---------|
|              | 모국방문<br>지원 | 화교에<br>대한<br>교육적<br>지원 | 이중국적<br>허용 | 한국과<br>중국(대만)<br>지방정부간<br>자매결연 추진 | 화교에<br>대한<br>법적·제도적<br>차별철폐 | 자유로운<br>취업과<br>투자<br>기회 보장 | 기타      |
| 200<br>(100) | 9(4.5)     | 87(43.5)               | 25(12.5)   | 7(3.5)                            | 42(21.0)                    | 18(9.0)                    | 12(6.0) |

## 제 4절 국가 인식

### 1. 이민 계획

연구대상자들의 국가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서 37.5%의 응답자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62.5%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표 3-4-1> 참조).

<표 3-4-1> 이민 가고 싶은지

| N%           | 반응구분               |                       |
|--------------|--------------------|-----------------------|
|              | 다른 나라로 이민<br>가고 싶다 | 다른 나라로 이민<br>가고 싶지 않다 |
| 200<br>(100) | 75(37.5)           | 125(62.5)             |

개인배경변인별로 보면 10대 후반 1/3, 20대 2/3, 30대는 거의 반수의 응답자가 이민을 가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부산 젊은 화교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가고 싶은 비율은 40대이상 보다 상당히 높다. 직업에 따라 이민을 가고 싶다는 비율은 회사원·직원 77.8%, 요식업 종업원 50%, 기타 50%, 학생 45.3%, 사업자·상인 37.7%순으로 나타났다. '이민 가고 싶지 않다'에 대해 가장 응답한 직업은 교사와 약사·의사가 각각 86.4%, 8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그들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이다(<표 3-4-2>참조).

<표 3-4-2> 다른 나라 이민에 대한 한국 화교의 연령별, 직업별 인식 반응 분포

| 변인  | 변인구분    | 반응구분(%)         |                    |          |
|-----|---------|-----------------|--------------------|----------|
|     |         |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지 않다 | 합 계      |
| 연령별 | 10대후반   | 13(6.5)         | 22(11.0)           | 35(17.5) |
|     | 20대     | 19(9.5)         | 11(5.5)            | 30(15.0) |
|     | 30대     | 12(6.0)         | 13(6.5)            | 25(12.5) |
|     | 40대     | 19(9.5)         | 47(23.5)           | 66(33.0) |
|     | 50대     | 8(4.0)          | 18(9.0)            | 26(13.0) |
|     | 60대     | 4(2.0)          | 10(5.0)            | 14(7.0)  |
|     | 70대     |                 | 3(1.5)             | 3(1.5)   |
|     | 80대     |                 | 1(0.5)             | 1(0.5)   |
| 직업별 | 학 생     | 24(12.0)        | 29(14.5)           | 53(26.5) |
|     | 교 사     | 3(1.5)          | 19(9.5)            | 22(11.0) |
|     | 사업자,상인  | 26(13.0)        | 43(21.5)           | 69(34.5) |
|     | 회사원,직원  | 7(3.5)          | 2(1.0)             | 9(4.5)   |
|     | 요식업 종업원 | 7(3.5)          | 7(3.5)             | 14(7.0)  |
|     | 약사, 의사  | 1(0.5)          | 4(2.0)             | 5(2.5)   |
|     | 기술자     |                 | 1(0.5)             | 1(0.5)   |

|        |          |           |            |
|--------|----------|-----------|------------|
| 주부, 무직 | 6(3.0)   | 19(9.5)   | 25(12.5)   |
| 기 타    | 1(0.5)   | 1(0.5)    | 2(1.0)     |
| 합 계    | 75(37.5) | 125(62.5) | 200(100.0) |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경제적으로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가 31.7%, '자녀(또는 본인)의 교육을 위해서'가 29.3%, '화교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가 19.8%, '그 나라가 좋아서'가 13.2%, '이미 그곳에 가있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가 6.0% 순으로 나타났다(<표 3-4-3> 참조).

<표 3-4-3>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는 이유

|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는 이유           | 제1선택     | 제2선택     | 제3선택     | 합 계      |
|----------------------------|----------|----------|----------|----------|
| ① 화교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 15(20.0) | 7(14.0)  | 11(26.2) | 33(19.8) |
| ② 경제적으로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 31(41.3) | 12(24.0) | 10(23.8) | 53(31.7) |
| ③ 자녀(또는 본인)의 교육을 위해서       | 20(26.7) | 23(46.0) | 6(14.3)  | 49(29.3) |
| ④ 그 나라가 좋아서                | 8(10.7)  | 7(14.0)  | 7(16.7)  | 22(13.2) |
| ⑤ 이미 그곳에 가있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 1(1.3)   | 1(2.0)   | 8(19.0)  | 10(6.0)  |
| 합 계                        | 75(100)  | 50(100)  | 42(100)  | 167(100) |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이미 한국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서'가 28.0%,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서'가 21.3%, '한국이 좋아서'가 20.9%,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가 17.5%, '그곳에 가도 차별이 있을 테니까'가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4-4> 참조).

<표 3-4-4> 한국에 계속 살려는 이유

| 한국에 계속 살려는 이유               | 제1 선택    | 제2 선택    | 제3 선택    | 합 계      |
|-----------------------------|----------|----------|----------|----------|
| ① 한국이 좋아서                   | 33(26.4) | 7(14.3)  | 4(10.8)  | 44(20.9) |
| ② 이미 한국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서       | 37(29.6) | 16(32.7) | 6(16.2)  | 59(28.0) |
| ③ 그곳에 가도 차별이 있을 테니까         | 15(12.0) | 6(12.2)  | 5(13.5)  | 26(12.3) |
| ④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서 | 18(14.4) | 16(32.7) | 11(29.7) | 45(21.3) |
| ⑤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 22(17.6) | 4(8.2)   | 11(29.7) | 37(17.5) |
| 합 계                         | 125(100) | 49(100)  | 37(100)  | 211(100) |

## 2. 국적

부산 화교의 귀화 현황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 200명 중 192명 (96.0%)이 귀화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개인배경변인별 (<표 3-4-6>)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귀화자가 없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귀화자가 많았고 학생, 사업자·상인, 주부·무직이 각각 2명이었으며 교사가 1명이었다.

<표 3-4-5> 귀화 상황

| N%           | 반응구분       |        |
|--------------|------------|--------|
|              | 귀화를 하지 않았다 | 귀화를 했다 |
| 200<br>(100) | 192(96.0)  | 8(4.0) |



한국화교의 뚜렷한 특징은 국적을 바꾸지 않고 대만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다수 화교는 이 점을 한국인과의 가장 근본적인 구별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화교의 입장에서 화교는 귀화하지 않은 중국 사람을 가리키고 만약 국적을 바꿨으면 한국 사람이자 화교가 아닌 것이다.

<표 3-4-6> 귀화에 대한 한국 화교의 연령별, 성별, 직업별 인식 반응 분포

| 변인  | 변인구분    | 반응구분(%)    |        |            |
|-----|---------|------------|--------|------------|
|     |         | 귀화를 하지 않았다 | 귀화를 했다 | 합 계        |
| 연령별 | 10대후반   | 34(17.0)   | 1(0.5) | 35(17.5)   |
|     | 20대     | 28(14.0)   | 2(1.0) | 30(15.0)   |
|     | 30대     | 23(11.5)   | 2(1.0) | 25(12.5)   |
|     | 40대     | 63(31.5)   | 3(1.5) | 66(33.0)   |
|     | 50대     | 26(13.0)   |        | 26(13.0)   |
|     | 60대     | 14(7.0)    |        | 14(7.0)    |
|     | 70대     | 3(1.5)     |        | 3(1.5)     |
|     | 80대     | 1(0.5)     |        | 1(0.5)     |
| 성별  | 남       | 108(54.0)  | 3(1.5) | 111(55.5)  |
|     | 여       | 84(42.0)   | 5(2.5) | 89(44.5)   |
| 직업별 | 학 생     | 51(25.5)   | 2(1.0) | 53(26.5)   |
|     | 교 사     | 21(10.5)   | 1(0.5) | 22(11.0)   |
|     | 사업자, 상인 | 67(33.5)   | 2(1.0) | 69(34.5)   |
|     | 회사원, 직원 | 9(4.5)     |        | 9(4.5)     |
|     | 요식업 종업원 | 13(6.5)    | 1(0.5) | 14(7.0)    |
|     | 약사, 의사  | 5(2.5)     |        | 5(2.5)     |
|     | 기술자     | 1(0.5)     |        | 1(0.5)     |
|     | 주부, 무직  | 23(11.5)   | 2(1.0) | 25(12.5)   |
|     | 기 타     | 2(1.0)     |        | 2(1.0)     |
| 합 계 |         | 192(96.0)  | 8(4.0) | 200(100.0) |

부산 화교가 귀화를 하지 않은 이유를 <표 3-4-7> 살펴보면 '중국사람이므로 반드시 중국(대만) 국적을 지켜야 한다'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1선택에서 109명(57.1%)이, 제2선택에서는 '귀화를 하면 화교 정체성이나 문화를 잃을 것 같다'(26.6%)가 제1위로 나타났다. 제3선택 중에서는 '귀화절차가 너무 까다롭다'(29.6%)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률이 높은 순으로 보면 '중국 사람이므로 반드시 중국(대만) 국적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139(2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귀화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85(17.5%), '귀화를 하면 화교 정체성이나 문화를 잃을 것 같다' 82(16.8%), '귀화를 안 하는 것이 (본인 또는 자녀가)한국의 대학진학에 유리하다' 75(15.4%) 순으로 나타났다. 귀화 상황과 귀화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 결과는 "국내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20) 결과와 일치하였다.

⑥번 '귀화를 안 하는 것이 (본인 또는 자녀가)한국의 대학진학에 유리하다'와 ⑧번 '귀화절차가 너무 까다롭다'의 경우는 현실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⑤번 '중국사람이므로 반드시 중국(대만) 국적을 지켜야 한다'와 ⑦번 '귀화를 하면 화교 정체성이나 문화를 잃을 것 같다'은 '문화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⑤번과 ⑦번은 민족·국적과 관련하여 화교들의 솔직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⑨번 '화교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된다'의 경우는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 화교들은 귀화자에 대한 화교 집단의 배제와 압력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화교들이 귀화하지 않고 중화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화교 집단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화교의 민족적 자긍심 때문이다.

20) 박경태, 2003, 조사대상은 693명 있고, 그 중에 98%가 귀화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을 하였다. 조사대상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 61.6%, 부산 21.8%, 대구 11.0%, 그리고 광주 5.6%가 각각 차지하였다.

<표 3-4-7> 귀화를 하지 않는 이유

| 귀화를 하지 않는 이유                                  | 제1 선택     | 제2 선택    | 제3 선택    | 합 계       |
|-----------------------------------------------|-----------|----------|----------|-----------|
| ①한국이 싫다                                       | 6(3.1)    | 2(1.3)   | 3(2.1)   | 11(2.3)   |
| ②어차피 한국을 떠날테니 불<br>필요하다                       | 11(5.8)   | 9(5.8)   | 6(4.2)   | 26(5.3)   |
| ③대만국적 유지가 사업상 불<br>가피하다                       | 7(3.7)    | 14(9.1)  | 18(12.7) | 39(8.0)   |
| ④한국 국적으로 살면 불편<br>하다                          | 1(0.5)    | 3(1.9)   | 6(4.2)   | 10(2.1)   |
| ⑤중국사람이므로 반드시 중국<br>(대만) 국적을 지켜야 한다            | 109(57.1) | 19(12.3) | 11(7.7)  | 139(28.5) |
| ⑥귀화를 안 하는 것이 (본인<br>또는 자녀가)한국의 대학진<br>학에 유리하다 | 21(11.0)  | 37(24.0) | 17(12.0) | 75(15.4)  |
| ⑦귀화를 하면 화교 정체성이<br>나 문화를 잃을 것 같다              | 18(9.4)   | 41(26.6) | 23(16.2) | 82(16.8)  |
| ⑧귀화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 17(8.9)   | 26(16.9) | 42(29.6) | 85(17.5)  |
| ⑨화교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br>까 걱정된다                     | 1(0.5)    | 3(1.9)   | 16(11.3) | 20(4.1)   |
| 합 계                                           | 191(100)  | 154(100) | 142(100) | 487(100)  |

위의 설문 결과를 통해 한국 화교들이 귀화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한국 화교의 원적이 중국의 북방지역 산둥성이다. 중국 북방인은 비교적 보수적이고 이민초기의 세대에는 후손이 현지 이민족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여 한국인과 접촉하는 것과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화교들이 스스로를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화교들이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도 귀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한국 화교들은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로 강제 귀화의 압력을 받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화교들의 국적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

고, 그 결과 적어도 아직까지는 한국 화교의 압도적인 다수가 귀화를 하지 않은 채 대만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앞의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들 중 96%가 귀화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 하였다.

셋째, 한국은 외국인이 귀화하기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한국정부는 귀화에 대한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귀화는 신청 조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학력이 높고 수입이 많으며,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이나 교사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이외의 경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귀화 할 수 있다<sup>21)</sup>.

넷째, 한국화교가 국적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강한 민족적 자긍심 때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의 화교는 자기가 중국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으며 또 국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신과 한국인을 구분하고 있다. 국적을 바꾸었느냐의 여부가 화교집단의 한국사회에의 동화 여부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화교가 의식적으로 국적을 바꾸지 않는 현상은 그들이 의식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민족의식을 유지하는 것이며 한국인과 동화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陸益龍 2005:76).

<표 3-4-8> 귀화 계획 있는지 여부

| N%           | 반응구분     |           |          |
|--------------|----------|-----------|----------|
|              | 있 다      | 없 다       | 모르겠다     |
| 192<br>(100) | 32(16.7) | 102(53.1) | 58(30.2) |

21) 1957년 첫 귀화인을 받아들인 이후 지금까지 2,000여명의 외국인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귀화인 가운데 3분의2 정도가 대만출신 화교여서 더욱 그렇다. 더구나 이들도 199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귀화하기 시작했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언젠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습니  
 결과 53.1%가 귀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30.2%, '있다'는 반응비는 16.7%였다. <표 3-4-9>에서 살펴보면 연령별로  
 는 50대, 60대 중에 각각 80.8%, 85.7%는 귀화 계획이 없고 70대 이상은 '  
 귀화 계획이 없다'가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대 후반에서는 '귀화 계  
 획이 있다'(23.5%)의 비중이 '귀화 계획이 없다'(17.6%)보다 더 많았고, 절  
 반 이상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표 3-4-8>참조).

<표 3-4-9> 귀화 계획에 대한 한국 화교의 연령별 반응 분포

| 변<br>인      | 변인구분  | 반응구분(%)  |           |          |          |
|-------------|-------|----------|-----------|----------|----------|
|             |       | 있 다      | 없 다       | 모르겠다     | 합 계      |
| 연<br>령<br>별 | 10대후반 | 8(4.2)   | 6(3.1)    | 20(10.4) | 34(17.7) |
|             | 20대   | 4(2.1)   | 14(7.3)   | 10(5.2)  | 28(14.6) |
|             | 30대   | 6(3.1)   | 12(6.3)   | 5(2.6)   | 23(12.0) |
|             | 40대   | 12(6.3)  | 33(17.2)  | 18(9.4)  | 63(32.8) |
|             | 50대   | 1(0.5)   | 21(10.9)  | 4(2.1)   | 26(13.5) |
|             | 60대   | 1(0.5)   | 12(6.3)   | 1(0.5)   | 14(7.3)  |
|             | 70대   |          | 3(1.6)    |          | 3(1.6)   |
|             | 80대   |          | 1(0.5)    |          | 1(0.5)   |
| 합 계         |       | 32(16.7) | 102(53.1) | 58(30.2) | 192(100) |

<표 3-4-10> 자녀 귀화의 태도

| N%           | 반응구분         |          |              |          |              |
|--------------|--------------|----------|--------------|----------|--------------|
|              | 전적으로<br>찬성한다 | 찬성한다     | 아무래도<br>상관없다 | 반대한다     | 전적으로<br>반대한다 |
| 200<br>(100) | 11(5.5)      | 31(15.5) | 100(50.0)    | 40(20.0) | 18(9.0)      |



한편, 자신의 귀화와는 달리 자녀들이 귀화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찬성하는 사람이 42명(21.0%)이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58명(29.0%)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중립적인 입장인 '아무래도 상관없다'(100명, 50.0%)라고 응답한 사람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자녀의 귀화에 반대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71%에 이르는 셈이다. 그들은 비록 자신은 귀화 하지 않았지만 자녀 세대가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젊은 세대들은 부모세대와 달리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 속도와 폭이 빠르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귀화하는 화교의 수가 늘어갈 가능성도 있다(박경태 2003:64).

한국 화교의 민족의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원화 되고 있고, 민족 관념도 변화되고 있다. 그와 함께 타국적 획득에 대한 인식도 점점 변화하고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미 화교 중 일부는 그들의 자녀가 국적을 바꾸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대부분의 화교 또한 자녀의 타국적 취득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표 3-4-10 참고>).

화교들이 자녀의 타국적 취득에 대해 개의치 않는 태도를 취하는 원인은 아마도 그들이 점차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전의 관념과 선택은 그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국적을 바꾸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기타 직업에서도 제한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화교도 국적을 바꾸면 동화되어 버린다는 관념이 바뀌어 개인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타국적을 가지고 있는 화교의 성공도 중국의 자랑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4-11> 중국국적 취득의 태도

| N%           | 반응구분      |          |           |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찬성한다     | 아무래도 상관없다 | 반대한다     | 전적으로 반대한다 |
| 200<br>(100) | 6(3.0)    | 21(10.5) | 112(56.0) | 55(27.5) | 6(3.0)    |

중국 국적 취득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찬성하는 응답자가 27명(13.5%), 반대하는 응답자가 61명(30.5%)으로 나타났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112명, 56.0%)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후반과, 20대, 30대 그리고 70대 응답자가 '찬성한다'와 '반대한다'의 응답을 비슷하게 나타냈다. 이와는 40~60대 화교들이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각각 연령대는 응답은 중립적인 입장인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말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3-4-12> 참조).

<표3-4-12> 중국국적 취득의 태도에 대한 한국 화교의 연령별 반응 분포

| 변인  | 변인구분   | 반응구분(%)   |          |           |          |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찬성한다     | 아무래도 상관없다 | 반대한다     | 전적으로 반대한다 |
| 연령별 | 10대 후반 | 4(2.0)    | 3(1.5)   | 20(10.0)  | 7(3.5)   | 1(0.5)    |
|     | 20대    |           | 4(2.0)   | 21(10.5)  | 4(2.0)   | 1(0.5)    |
|     | 30대    |           | 4(2.0)   | 14(7.0)   | 7(3.5)   |           |
|     | 40대    | 2(1.0)    | 6(3.0)   | 32(16.0)  | 24(12.0) | 2(1.0)    |
|     | 50대    |           | 1(0.5)   | 16(8.0)   | 7(3.5)   | 2(1.0)    |
|     | 60대    |           | 2(1.0)   | 7(3.5)    | 5(2.5)   |           |
|     | 70대    |           | 1(0.5)   | 2(1.0)    |          |           |
|     | 80대    |           |          |           | 1(0.5)   |           |
| 합 계 |        | 6(3.0)    | 21(10.5) | 112(56.0) | 55(27.5) | 6(3.0)    |

한국 화교의 중국인으로서의 긍지의식은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의 특징을 반영한다. 즉 민족적 감정은 그들이 중국인에 더 가깝다. 그러나 중국인으로서의 긍지가 정치적인 국가의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먼저 한국화교는 오랜 역사적 배경과 복잡한 사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특수한 정치의식을 형성하였다. 역사상 한국화교는 줄곧 대만정부의 보호를 받고 대만교육을 받았다. 또한 한국과 북한의 적대적 대치상태로 인해 냉전시대의 대다수 한국 화교는 사회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이외에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화교의 정치의식은 한국주류사회의 정치의식 형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한국주류사회의 정치의식행태는 사회주의와 분명히 구별된다. 이러한 정치의식 문제는 어느 면에서든 분명 화교들의 중국정부에 대한 정치적 인식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인식면에서 한국 화교는 급변하는 정치상황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순에 직면하였다. 과거 한국 화교의 여권은 모두 대만정부에서 발급한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하고나서 한국화교는 대만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국가로 선택할 것이냐는 곤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특히, 한국정부가 대만정부와 국교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을 때, 한국화교들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여 그들의 국가 의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지금 한국화교 내부에서는 3가지 성향이 존재한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둘째, 중립성을 띤 중국을 인정하는 것, 셋째, “중화민국”을 인정하는 것이다.(陸益龍 2005:77).

한국화교는 친공파이든지 아니면 친대파이든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 화교들은 “중화민국”을 인정하는 경향이고, 중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2000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독립을 주장해 왔던 민진당의 천수이벤(陳

水扁)이 총통으로 당선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천수이벤의 당선으로 중화민국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화교는 천수이벤 정부가 주장한 대만 독립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화교들은 대부분 대만 독립에 대해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화교들이 생각하는 ‘조국’은 대만과 대륙을 포함한 하나의 ‘중국’이었다. 2007년 9월 민진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고 ‘대만’의 명의로 유엔에 가입하자는 결의안을 제시하였다.<sup>22)</sup> 이 연구에 응답한 화교 중 일부는 ‘지금 중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대만이 독립하면 중국 국적을 취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표 3-4-13> 배우자로 선호하는 민족의 순위

| 순 위<br>배우자<br>민족 | 반응구분     |          |          |          |          |           |
|------------------|----------|----------|----------|----------|----------|-----------|
|                  |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제4순위     | 제5순위     | 제6순위      |
| 한 화              | 93(50.3) | 41(22.4) | 21(11.8) | 8(5.1)   | 7(5.0)   | 7(5.1)    |
| 대 만              | 26(14.1) | 47(25.7) | 58(32.6) | 29(18.4) | 13(9.4)  | 1(0.7)    |
| 대 륙              | 1(0.5)   | 15(8.2)  | 43(24.2) | 58(36.7) | 32(23.0) | 13(9.6)   |
| 한 국              | 43(23.2) | 48(26.2) | 26(14.6) | 29(18.4) | 23(16.5) | 2(1.5)    |
| 다른 나라<br>화교      | 16(8.6)  | 21(11.5) | 22(12.4) | 32(20.3) | 58(41.7) | 4(2.9)    |
| 기 타              | 6(3.2)   | 11(6.0)  | 8(4.5)   | 2(1.3)   | 6(4.3)   | 109(80.1) |
| 합 계              | 185(100) | 183(100) | 178(100) | 158(100) | 139(100) | 136(100)  |

22) 2007년 09월 30일 민진당이 "대만은 주권 및 독립 국가로 대만과 중국은 서로 속하거나 통치할 수 없다"며 그 동안 고수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 포기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진당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공식국호도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아닌, '타이완(Taiwan)'으로 바꾸고 대만이 중국과 별개의 주권 및 독립 국가임을 명시하는 새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todaykorea.co.kr> 투데이 코리아

연구대상자들이 원하는 배우자의 민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의 배우자(또는 본인 배우자)로 선호하는 민족을 알아본 결과는 <표 3-4-12>과 같다. 응답자의 반수(50.3%)가 제1순위에 '한화'를 원하였다. 다음에 '한국'(23.2%), '대만'(14.1%), '다른 나라 화교'(8.6%), '기타'(3.2%), '대륙'(0.5%) 순으로 나타났다. 제2순위에는 '한화', '대만', '한국'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각각 22.4%, 25.7%, 26.2%로 차지하였다. 3순위의 통계를 보면 부산 화교는 배우자로 선호하는 민족이 '한화'(84.5%), '대만'(72.4%), '한국'(64.0%)이다. 고등학생 중에 몇 명은 서양사람 특히 미국사람을 배우자로 희망하였다. 결과적 부산 화교들은 배우자로 한화, 또는 한국사람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화교들이 지금까지 3대, 4대가 한국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고 배우자를 자기와 생활방식이 비슷한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다.

화교들이 한국사회의 차별과 장애로 성공하지 못했거나 차별로 인한 좌절과 곤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화교들은 한국, 중국, 대만 사이에서 중국과 대만보다 한국을 보금자리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한국화교는 한국에 대해 주거지라는 감정과 동시에 한국화교정책에 대한 거부감의 감정이 병존하고 있다. 이는 한국화교의 민족의식이 단조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현재 한국의 화교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권은 대만여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화교들은 대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대만에 있더라도 대만국민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과 생활면에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장애와 제한이 뒤따른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고향은 대부분 산둥성이지만 장기간의 한국거주로 고향과의 연결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으며, 기타 경제와 사회의 영향으로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

간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화교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지만 그들의 생활근거지는 역시 한국이며 화교들 또한 이러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교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화교가 한국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이 화교들의 중국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며 화교들의 의식속에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보급자리)과 중국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병존하기 때문이다. 화교의 민족의식은 단순하지 않고 다원적이다(陸益龍 2005:77).



## 제4장 한국 화교 정체성의 민족적 특성

정체성의 민족적 특성 요소는 언어, 문화적 요소 등 민족 성원 사이에 공유한 요소로 이 객관적 요소를 통해 민족을 구분할 수도 있다. 프레드릭 바스(Frederick Bath)는 정체성은 구성원 스스로가 타자와 대비하여 다르다는 타자의식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와 의미 부여이다. 따라서 민족 정체성은 자신을 다른 민족과 구별 짓는 특징이다. 한국 화교들의 민족 정체성의 민족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언어 분야에서 모국어의 인식과 사용 정도, 문화 분야에서 민족 관습, 명절, 시청하는 TV방송, 가요, 스포츠 경기시에 응원하는 나라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 제1절 언어적 동질성

연구대상자들의 모국어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응답자들 가운데 88.5%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7.0%만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4.5%의 응답자는 '기타'를 응답하였다. '기타'를 응답자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같이 모국어로 생각하였다.

<표 4-1-1> 생각하는 모국어

| N%           | 반응구분    |           |        |
|--------------|---------|-----------|--------|
|              | 한국어     | 중국어       | 기 타    |
| 200<br>(100) | 14(7.0) | 177(88.5) | 9(4.5) |



<표 4-1-2> 모국어 인식에 대한 연령별 반응 분포

| 변인  | 변인구분  | 반응구분(%) |           |        |            |
|-----|-------|---------|-----------|--------|------------|
|     |       | 한국어     | 중국어       | 기타     | 합계         |
| 연령별 | 10대후반 | 7(3.5)  | 26(13.0)  | 2(1.0) | 35(17.5)   |
|     | 20대   | 5(2.5)  | 21(10.5)  | 4(2.0) | 30(15.0)   |
|     | 30대   | 1(0.5)  | 23(11.5)  | 1(0.5) | 25(12.5)   |
|     | 40대   | 1(0.5)  | 63(31.5)  | 2(1.0) | 66(33.0)   |
|     | 50대   |         | 26(13.0)  |        | 26(13.0)   |
|     | 60대   |         | 14(7.0)   |        | 14(7.0)    |
|     | 70대   |         | 3(1.5)    |        | 3(1.5)     |
|     | 80대   |         | 1(0.5)    |        | 1(0.5)     |
|     | 합 계   | 14(7.0) | 177(88.5) | 9(4.5) | 200(100.0) |

모국어라는 것은 민족주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언어 표현이다. 그러다보니 모어라고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또는 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고국의 언어를 말할 때에 사용한다. 『교학한국어사전』에서 "①자기 조국의 말, 본국어 ②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국어 또는 외국어에 대하여 자기 민족 고유의 언어를 이르는 말" 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교학한국어사전』에 따르면 "국어", "민족어", "모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국어(國語): 나라말. 한 나라의 말. 주로 단일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언어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자기 고유 언어가 없거나 다중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국어'보다는 '공용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민족어(民族語): 각 민족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한국은 단일 민족이므로 한국의 민족어는 곧 한국어이다. 하지만, 중국은 다 민족 국가로 여러 민족어가 있다. 장족(壯族) 경우에는 민족어 '壯語'는 그들만 사용하는 언어이며, 이는 어느 한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다.

모어(母語): 어느 한 개인이 자라면서 저절로 배우는 말이며, 제1언어라고도 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모어는 한국어로 한국어가 모국어가 된다. 하지만, 다중 언어를 쓰는 나라, 예컨대 미국에 사는 미국 국적의 화교가 집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자랐다면 모어는 '중국어'가 되겠고 학교에 가면서는 제2언어로 '영어'를 배우게 된다. 말레이시아 화교의 경우 모어는 중국어이고, 국어는 말레이어, 공용어는 영어다.

<표 4-1-2>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화교의 언어 사용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나이가 젊을수록 한국어를 모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중년이상에 비해 청소년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50대 이상 응답자는 100% 모국어를 중국어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젊은 사람의 일부분은 모국어를 '사고 및 표현이 사용 언어'로 생각하였다. 부산 화교 1, 2세대들은 한국 사회에 동화·적응하지 않고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알기 때문에 모국어는 당연히 중국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3, 4세대들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가 많고 한국 사회에 동화해서 한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위 세대 사람들보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4.5%의 응답자는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모국어라고 인식하였다. 고등학교학생들은 중국이나 대만에 가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중국어와 한국어 중 어느 것이 모국어인지 확실히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모국어라고 생각하였다.

가정에서 중국어 사용 정도를 알아본 결과 '중국어와 한국어를 똑같이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31.0%로 높은 비율 차지하였다.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응답은 24.5%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쓴다'라는 응답은 22.5%로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국어만 쓴다'는 응답자는 16.5%, '한국어만 쓴다'는 응답자도 5.5%를 차지하였다.

<표 4-1-3> 가정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정도

| N%           | 반응구분     |                    |                  |                    |         |
|--------------|----------|--------------------|------------------|--------------------|---------|
|              | 중국어만 쓴다  |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쓴다 | 중국어와 한국어를 똑같이 쓴다 |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쓴다 | 한국어만 쓴다 |
| 200<br>(100) | 33(16.5) | 49(24.5)           | 62(31.0)         | 45(22.5)           | 11(5.5) |

연령별로 살펴보면 4%의 30대 이하의 응답자는 가정에서 '중국어만 쓴다'고 답한데 반해 70대 이상 응답자의 100%가 '중국어만 쓴다'고 응답하였다. 50대 중에 '한국어만 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7%였다. 이는 남편은 한국인이며 자녀들이 한국학교를 다녀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경우였다. <표 4-1-2>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나이에 따라서 중국어를 쓰는 정도가 다르다. 나이가 적을수록 한국어를 쓰는 비중이 높았다. 부산 화교 응답자들(88.5%)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한국어(29.5%)보다 중국어(39.5%)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추산된다.

<표 4-1-4> 가정에서 중국어 사용빈도에 대한 연령별 반응 분포

| 변인  | 변인구분   | 반응구분(%)  |                    |                  |                    |         |            |
|-----|--------|----------|--------------------|------------------|--------------------|---------|------------|
|     |        | 중국어만 쓴다  |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쓴다 | 중국어와 한국어를 똑같이 쓴다 |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쓴다 | 한국어만 쓴다 | 합계         |
| 연령별 | 10대 후반 |          | 9(4.5)             | 12(6.0)          | 11(5.5)            | 3(1.5)  | 35(17.5)   |
|     | 20대    |          | 5(2.5)             | 10(5.0)          | 10(5.0)            | 5(2.5)  | 30(15.0)   |
|     | 30대    | 1(0.5)   | 4(2.0)             | 10(5.0)          | 9(4.5)             | 1(0.5)  | 25(12.5)   |
|     | 40대    | 7(3.5)   | 20(10.0)           | 26(13.0)         | 13(6.5)            |         | 66(33.0)   |
|     | 50대    | 13(6.5)  | 7(3.5)             | 3(1.5)           | 1(0.5)             | 2(1.0)  | 26(13.0)   |
|     | 60대    | 8(4.0)   | 4(2.0)             | 1(0.5)           | 1(0.5)             |         | 14(7.0)    |
|     | 70대    | 3(1.5)   |                    |                  |                    |         | 3(1.5)     |
|     | 80대    | 1(0.5)   |                    |                  |                    |         | 1(0.5)     |
| 합 계 |        | 33(16.5) | 49(24.5)           | 62(31.0)         | 45(22.5)           | 11(5.5) | 200(100.0) |

연구대상자들의 중국어 수준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4-1-5>와 같다. 응답자의 37.5%가 '잘 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5%를 차지하였다. 25.5%의 응답자는 '아주 잘 한다'고 응답한에 비해 5.0%의 응답자는 '조금 한다'고 응답하였다. 0.5%의 응답자는 '전혀 못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1-5> 중국어의 능력

| N%           | 반응구분     |          |          |         |         |
|--------------|----------|----------|----------|---------|---------|
|              | 아주 잘 한다  | 잘 한다     | 그저 그렇다   | 조금 한다   | 전혀 못 한다 |
| 200<br>(100) | 51(25.5) | 75(37.5) | 63(31.5) | 10(5.0) | 1(0.5)  |

<표 4-1-6> 중국어 능력에 대한 연령별 반응 분포

| 변인      | 변인구분  | 반응구분(%)    |          |           |         |            |            |
|---------|-------|------------|----------|-----------|---------|------------|------------|
|         |       | 아주<br>잘 한다 | 잘 한다     | 그저<br>그렇다 | 조금 한다   | 전혀<br>못 한다 | 합계         |
| 연령<br>별 | 10대후반 | 4(2.0)     | 5(2.5)   | 20(10.0)  | 6(3.0)  |            | 35(17.5)   |
|         | 20대   | 3(1.5)     | 7(3.5)   | 18(9.0)   | 2(1.0)  |            | 30(15.0)   |
|         | 30대   | 4(2.0)     | 13(6.5)  | 6(3.0)    | 2(1.0)  |            | 25(12.5)   |
|         | 40대   | 20(10.0)   | 28(14.0) | 17(8.5)   |         | 1(0.5)     | 66(33.0)   |
|         | 50대   | 12(6.0)    | 12(6.0)  | 2(1.0)    |         |            | 26(13.0)   |
|         | 60대   | 6(3.0)     | 8(4.0)   |           |         |            | 14(7.0)    |
|         | 70대   | 1(0.5)     | 2(1.0)   |           |         |            | 3(1.5)     |
|         | 80대   | 1(0.5)     |          |           |         |            | 1(0.5)     |
| 합 계     |       | 51(25.5)   | 75(37.5) | 63(31.5)  | 10(5.0) | 1(0.5)     | 200(100.0) |

<표 4-1-6>는 연령별 중국어 능력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화교 3, 4세대는 가정에서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젊은 화교들의 중국어 실력은 1, 2세대 보다 낮다. 즉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를 생각하고 가정에서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부산 화교의 언어적 동화 수준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모국어, 그리고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중국어 능력 수준사이의 상관관계를 볼 때 앞으로 중국어를 사용하는 젊은 한국 화교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화교학교의 취학률은 아주 높은 편이다. 현재 대다수의 화교 자녀들이 화교학교에 재학중이다. 현재 화교와 한국인 간의 통혼이 증가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1/3의 학생이 한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다(오심화 1999). 청소년 화교들은 주로 화교학교에서 중국어를 사용한다. 화교학교의 수업은 중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화교학교가 민족 교육과 화교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으나, 청소년들의 언어는 이미 한국어로 변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연예인에 열광한다. 중국어 방송도 보지 않고 중국어 노래도 모른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상 한국인과 구별할 수도 없다.

이렇듯 젊은 한국화교들 사이에서는 한국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들은 자신이 중국문화를 가진 ‘중국인’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강한 편이다. 이러한 ‘중국인’이라는 인식은 국가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그저 막연히 ‘중국인’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이도저도 아닌 ‘샌드위치’와 같은 존재, ‘붕 떠있는’ 존재로 표현한다(왕은미 2007).

응답자들에게 중국어를 현재보다 더 잘 구사하고 싶은지 알아본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5.5%를 차지하여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자는 18.0%였다. ‘그렇지 않다’ 4.0%와 ‘전혀 그렇지 않다’ 2.5%와 같이 부정적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 화교들은 중국어를 더 잘 구사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표 4-1-7> 참조).

<표 4-1-7> 중국어 실력 향상 희망도

| N%           | 반응구분     |          |          |        |           |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200<br>(100) | 58(29.0) | 93(46.5) | 36(18.0) | 8(4.0) | 5(2.5)    |



중국어를 더 잘 구사하고 싶은 이유로는 '모국어를 지켜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7.3%로 가장 많이 있다. 이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26.0%, '기타' 7.3%, '앞으로 대만에서 공부하기(살기) 위해서' 4.7%, '앞으로 중국에서 공부하기(살기) 위해서' 4.0%,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 0.7%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직업, 언어 대한 관심, 한국인의 중국어 실력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2.7%은 '앞으로 중국에서 공부하기(살기) 위해서'와 '앞으로 대만에서 공부하기(살기) 위해서'를 동시에 선택하였다(<표 4-1-8> 참조).

<표 4-1-8> 중국어를 더 잘 구사하는 이유

| N%           | 반응구분              |               |                       |                       |              |         |
|--------------|-------------------|---------------|-----------------------|-----------------------|--------------|---------|
|              | 모국어를 지켜가야 하기 때문이다 |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 앞으로 중국에서 공부하기(살기) 위해서 | 앞으로 대만에서 공부하기(살기) 위해서 |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 | 기 타     |
| 150<br>(100) | 86(57.3)          | 39(26.0)      | 6(4.0)                | 7(4.7)                | 1(0.7)       | 11(7.3) |

지금까지 언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 가운데 117명(88.5%)이 중국어를 모국어로 생각하고 있고, 가정에서 '중국어만', '중국어와 한국어를 더 많이 쓴다'는 응답자는 41%로 나타났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똑같이 쓴다'는 응답은 31.0%를 차지하였다. 중국어 능력은 '아주 잘 한다'와 '잘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3%를 차지하였고 75.5%의 응답자는 '중국어를 더 잘 구사하고 싶다'라고 응답하였다. 중국어를 더 잘 구사하고 싶은 이유로 반 수 이상(57.3%)의 응답자가 '모국어를 지켜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민족정체성의 특징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의 공통어가 존

재하고 이를 사용하는가의 여부이다. 부산 화교은 공통 언어의 사용을 통해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다. 부산 화교들은 모국어인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여 언어적으로 한국어에 많이 동화되지 않았다. 화교들 스스로도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민족의 특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향후 3, 4세대의 화교들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든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다.

## 제2절 문화적 동질성

부산 화교의 문화적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식습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똑같이 먹는다' 비율이 44.5%, '한국 음식보다 중국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비율이 26.0%, '중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비율이 24.0% '중국 음식만 먹는다' 비율이 5.0%, '중국 음식을 전혀 안 먹는다' 비율은 0.5%였다(<표 4-2-1> 참조).

<표 4-2-1> 중국 음식을 먹는 정도

| N%           | 반응구분       |                         |                       |                         |                 |
|--------------|------------|-------------------------|-----------------------|-------------------------|-----------------|
|              | 중국 음식만 먹는다 | 한국 음식보다 중국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똑같이 먹는다 | 중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 중국 음식을 전혀 안 먹는다 |
| 200<br>(100) | 10(5.0)    | 52(26.0)                | 89(44.5)              | 48(24.0)                | 1(0.5)          |

중국 3대 전통 명절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2-2>에서 제시한 비와 같다. '춘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90.5%) 그 다음으로 '추석'(77.0%), '단오'(50.0%)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화교들은 중국 전통 명절 중 춘절과 추석은 잘 지내고 있으며, 단오는 많이 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중국 전통 명절을 지내는 정도

| 명절 | 반응구분      |          |          |          |          |          |
|----|-----------|----------|----------|----------|----------|----------|
|    | 항상 잘 지낸다  | 되도록 지낸다  | 그저 그렇다   | 가끔 지낸다   | 전혀 안 지낸다 | 합 계      |
| 춘절 | 165(82.5) | 16(8.0)  | 13(6.5)  | 1(0.5)   | 5(2.5)   | 200(100) |
| 추석 | 129(64.5) | 25(12.5) | 33(16.5) | 6(3.0)   | 7(3.5)   | 200(100) |
| 단오 | 80(40.0)  | 20(10.0) | 50(25.5) | 21(10.5) | 29(14.5) | 200(100) |

중국 전통 명절에 전통 음식을 어느 정도 먹는지 알아본 결과 한식에 비해 '중국 전통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라고 응답 비율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한식이던 중국식이건 상관없이 먹는다' 30.5%, '한국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가 10.5%를 차지하였다(<표 4-2-3> 참조).

<표 4-2-3> 중국 전통 명절에 더 많이 먹는 음식

| N%           | 반응구분              |                |                  |
|--------------|-------------------|----------------|------------------|
|              | 중국 전통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 한국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 한식, 중국식 상관없이 먹는다 |
| 200<br>(100) | 118(59.0)         | 21(10.5)       | 61(30.5)         |

결과적으로는 부산화교 사회에서 중국의 음식, 명절, 풍습은 상당히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화교들의 민족 전통에 대한 중시는 중화 민족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저자가 설문조사시에 부산 엄궁동 로얄 화교아파트에서 60대, 70대의 여성 화교들 몇 명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중국 전통 명절에 전통음식을 많이 해 먹었다. 해마다 만두와 종자(粽子)<sup>23)</sup>를 자기가 직접 만들고 추석 때 중국 음식점에 가서 월병(月餅)을 사왔다. 대만에 있는 친척들도 명절 때 전통 음식을 한국에 보내 줬다. 한국 화교사회에서 전통요리는 잘 보존되어있고 한국에서 중국요리는 인기가 많다. 한국 화교들의 음식업 종사자는 전체 화교인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에 골고루 퍼져있는 중국식당은 화교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부산지역에서 1997년까지 중국식당은 102개가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소일, 오락을 알아본 결과는 <표 4-2-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2-4>가정에서 주로 보는 TV방송과 노래방에서 주로 부르는 노래

단위: 인(%)

| 주로 보는 TV방송 |            | 주로 부르는 노래 |            |
|------------|------------|-----------|------------|
| 중국방송       | 9(4.5)     | 중국가요      | 4(2.0)     |
| 대만방송       | 3(1.5)     | 대만가요      | 20(10.0)   |
| 한국방송       | 186(93.0)  | 한국가요      | 173(86.5)  |
| 기 타        | 2(1.0)     | 기 타       | 3(1.5)     |
| 합 계        | 200(100.0) | 합 계       | 200(100.0) |

23) 종자. 주악. 각서: 중국 전통 음식. 찹쌀에 대추 따위를 넣어 땃잎이나 갈잎에 싸서 찌 먹는 단옷날 음식의 한 가지

'한국방송'(93.0%)과 '한국가요'(86.5%)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방송' 그리고 '대만방송' 응답자는 각각 4.5%와 1.5%에 불과하였다. 노래방에서 주로 '대만가요'를 부른 응답자는 10.0%였고 '중국가요'는 2.0%에 불과했다. '기타'를 선택한 1.5%의 응답자는 미국 방송(1.0%), 일본방송(0.5%)을 주로 본다고 응답하였다. 50대 이상은 중국이나 대만 방송을 보고 싶지만 여건 한국이니까 할 수 없이 한국방송을 본다고 답하였다. 지금 한국에서 시청 가능한 중국어방송은 3개로, CCTV<sup>24)</sup>, 하오티비<sup>25)</sup>와 중화티비<sup>26)</sup>이다. 부산 화교들의 대부분은 노래방에서 한국가요를 주로 불렀다.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대만가요도 많이 알고 있어 노래방에서 대만가요와 한국가요를 같이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교들이 아는 중국 노래는 거의 80년대 대만에서 유행한 노래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대만가요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 또는 대만에서 유행하는 연예계에 관심이 없으며 중국 노래도 거의 모른다. 대만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만에서 생활 경험이 있고, 대만소재 대학에서 유학한 사람들이었다.

생활에서 젊은 화교들은 한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고 이들은 생활방식에서도 "한국성"(Koreanness)을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화교학생들은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최

24) 중국 국제채널, 광파전영전시부 소속 국영 TV 방송사로 전세계적인 방송망을 가지고 있다. 해외교포와 홍콩 마카오 대만을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전용채널이다. 국제채널은 여러개의 국제위성을 통하여 위성전송신호로 전국위성생방송 신호의 중요한 지역으로 전송된다.

25) 중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고,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 중국 여행, 연예인 등의 프로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국에 있지 않지만 중국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시청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프로이다.

26) 중국 뉴스, 드라마, 다큐, 교육,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으며, 중국의 정보뿐만 아니라 드라마는 자막이 나와서 시청하기에 적합하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어 듣기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신 한국 유행가요와 드라마에 심취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젊은 대중 가수들을 좋아하는 반면, 대만이나 중국의 대중 가수나 가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한국 대학교에서 중국어 공부하는 한국학생들이 유행하고 있는 중국가요를 잘 알고 있는데 비해, 한국 젊은 화교들은 중국 유행가요와 가수를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은 대조적 이다.

연구대상자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나라를 응원하는지 알아본 결과 '한국' 37.0%, '중국' 28.5%, '대만' 27.5% 순서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해 부산 화교들의 선택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볼 수 있다. 즉 60대 이상은 '중국, 대만, 한국'의 순서로, 40대와 50대는 '대만, 중국, 한국'의 순서, 30대 이하는 주로 '한국, 중국, 대만' 아니면 '한국, 대만, 중국'을 선택하였다. '한국'을 응원한다는 대답은 제1순위 아니면 제3순위를 많이 차지하고 제2순위에는 많지 않다. 이와 반대로 '중국'과 '대만'은 제2순위에 꼽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5> 스포츠 경기의 응원

|      | 반응구분     |          |           |         |          |
|------|----------|----------|-----------|---------|----------|
|      | 중국       | 대만       | 한국        | 중국과 대만  | N%       |
| 제1순위 | 57(28.5) | 55(27.5) | 74(37.0)  | 14(7.0) | 200(100) |
| 제2순위 | 75(37.5) | 90(45.0) | 21(10.5)  | 14(7.0) | 200(100) |
| 제3순위 | 54(27.0) | 41(20.5) | 105(52.5) | —       | 200(100) |

이상 부산 화교들의 언어사용과 문화를 통해 알아본 정체성의 민족 특성은 다음과 같다. 모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 88.5%의 화교들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똑같이 쓴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밖에 '중국어만 쓴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고 중국어를 잘 하는 응답자는 63.0%, 그저 그러 사



람은 31.5%였다. 더불어서 중국어를 잘 구사하고 싶다고 응답한 화교들은 75.5%에 달하였고 그 이유로는 '모국어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율인 57.3%로 차지하였다. 2, 3세대 화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언어 사용 비율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부산 화교들은 민족 언어를 잘 보존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부산 화교들은 중국 전통명절을 비롯한 민족 풍속·습관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 화교는 가정에서 주로 한국 방송을 보고 노래방에서도 한국가요를 부른다.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하는 팀에 대한 조사결과는 비슷했지만 연령에 따라서 응답경향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년층은 중국, 중년층은 대만, 젊은 세대는 한국을 응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화교는 중국문화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심지어 중화주의적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화교학교 선택 이유에 대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화교들은 중국문화가 역사가 유구하고 학문이 넓고 깊어 중국 사람은 당연히 중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화교들은 한국문화와 생활방식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긍지감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화교가 비싼 수업료를 내더라도 화교학교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긍지를 반영한다. 한국화교는 생활상에서 한국사회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또 자신의 특색을 지키는 비동화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 제5장 결론

정체성 문제는 디아스포라, 이민 및 그 후세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거주, 생활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단체 귀속의식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이민의 정체성은 실질적으로 주로 자신의 각종 소속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민족, 국가, 문화, 계급 등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느 단체에 속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일반적으로 이민의 정체성 해석에서는 ‘동화론’과 ‘이중성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민은 보통 거주국에 점차 동화되거나, 모국과 거주국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이중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화교의 정체성은 국적신분, 생활지역, 정치, 문화 등 방면에서는 ‘이중인’ 또는 순수 ‘중국인’이 아니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점차 다원화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한국 화교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여타 지역의 화교들이 현지에 도착화되어 화인으로 살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 화교들은 여전히 대만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생활에 적극 적응하는 동시에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보유하여 현지에 동화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화교의 이러한 정체성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화교 정체성의 사회적 인식에서, 우선 한국화교는 강한 친밀감과 긍지감을 갖고 있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화교들은 그들간에 친밀감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75.5%에 달했으며, 긍지감을 갖고 있

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74%였다.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자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을 때 한국 화교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결국 한국 화교사회가 아직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 주고 있었다.

한국화교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자로서 한국인과의 관계가 대체로 원만한 것으로 보였다. 설문에 응한 화교들 중 76%가 ‘한국인과의 관계’가 긍정적 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이들의 83%가 타민족과의 결혼을 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교가 한국에서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62%의 응답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반수(62.1%)의 응답자들이 한국사회가 화교들을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부산 거주 화교는 중국과 대만정부의 화교정책에 대하여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정부가 화교에 대한 지원도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40%의 화교가 대만정부가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한 반면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화교는 21.%에 불과하였다.

둘째, 한국 화교의 민족 특성에서, 우선 88.5%의 부산 화교들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간주하고 있으며, 약 71%의 화교는 중국어를 자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41%는 가정에서 중국어만 쓰고, 31%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똑같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화교들의 중국어 실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부산 화교들은 중국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들은 중국 음식, 전통명절, 그리고 스포츠 경기 등 측면에서 강한 중국 지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요컨대, 한국 화교들은 민족정체성의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는 중화민족으로서의 의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언어, 문화 등의 측면에서는 중화민족으로서의 특성을 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점차 한국문화와 생활방식을 수용하고 있지만 중국문화에 대한 금지감은 감소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특색을 간직하여, 한국 문화에 ‘비 동화적’이라는 특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한국화교들의 정체성은 세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었다. 한국 화교 1세대들은 언어, 관습, 의복, 거주지 등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인과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으며 1세대 한국화교 중 90% 이상은 산동성 출신이며, 그들은 언어, 관습 그리고 낮은 학력이라는 객관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역사체험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강한 내적 연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화교사회라는 운명공동체를 형성·유지·발전시켰다.

1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화교사회는 점차 2, 3세대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국 화교사회는 내부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화교 2세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관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세대이다. 일반적으로 화교 2세는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외부사회와의 폭넓은 접촉과정에서 화교사회라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다.

화교 3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가장 큰 특징은 중국과 대만에 대한 애착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화교 2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중국 본토에서 이민해 온 부모의 영향으로 중국 본토를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3세대의 경우는 달랐다. 1992년 한·중 수교로 화교 3세는 중국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인지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그들에게 경제적 기회라는 의미에 불화하였다. 화교 3세의 대만 감정을 살펴보면, 이들이 대만식 학제를 통해 교육을 받았고, 화교학교에서도 대만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 교육을 받았지만, 졸업 후 추상적인 국가 의식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쉽게 희석되고 말았다. 한국 대학에 진학한 화

교 학생들은 더욱 그러하였다. 화교 사회가 한국에 오래 정착하게 되면서 화교 3세들은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한국 사회에 대해 강한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화교 3세대들은 중국도 대만도 아닌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화교사회는 언어, 전통, 이데올로기 및 종교 등 내부적 요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이는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환경적 요인으로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화교는 나름대로 종족의 정체성, 즉 종족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한국 문헌

#### <단행본>

- 머레이 와이덴바움·사뮤엘 휴즈 공저, 지해범 역, 1998, 『華僑 네트워크』  
서울: 세종연구원
- 박현옥·박정동, 2003,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스털링 시그레이브 저, 원경주 역, 2002, 『중국 그리고 화교: 보이지 않는  
제국, 화교 네트워크의 역사』 서울: 프리미엄박스
- 양필승·이정희, 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덕훈, 2005, 『화교경제의 생성과 발전』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 왕경우 저, 윤필준 역, 2003, 『화교: 중국 밖의 또 다른 중국인』 경기도: 다  
락원
- 정성호, 2004, 『화교』 경기도: 살림출판사
- 윤인진, 2004, 『코리안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  
려대학교 출판부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고지영, 2003, "중국 조선족 정체성 변화 분석",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학위논문

- 곽병곤, 2002, "한중수교 이후 재한 화교 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국·최승현·이강복·최지현, 2002, "한국의 화교연구 배경 및 동향 분석", 중국인문학
- 김기호, 2005, "초국가시대의 이주민 정체성: 한국화교의 경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기호, 1995, "재한화교의 Ethnicity에 관한 연구-재한화교의 적응과정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재훈, 1999, "화교경제네트워크의 구조와 행태",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4호
- 나가이미유키, 2004, "화교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화교사회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남연주, 2003,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조선족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경태·장수현, 2003, "국내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박현옥·박정동, 2003,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IDI연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 박상순, 2001, "재한중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만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1981, "한국 화교 사회의 역사", 『진단학보』 제52호
- \_\_\_\_\_, 1986, 『한국 화교의 종족성』, 서울: 한국연구원
- 선학태, 1996, "세계화와 한국정치 개혁의 제도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2호

- 석미령, 1999, "한국화교교육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 안시현, 1998, "한국 화교 청소년의 생활상과 종족성", 한양대학교 문화 인류학과 학사학위논문
- 안영도, 2001, "화교의 법적 지위와 영주권의 필요성" 국제인권법학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 양리리, 2003, "화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 양승태, 2005, "국가정체성 문제와 정치학 연구: 무엇을, 어떻게-하나의 거대 연구 기획을 위한 방법론적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 양필승, 2000, "한국 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세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3권 1호
- 왕춘식, 2004, "한국 화교2세의 질곡과 소망", 『연속기획/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구조 5-화교』
- 오명석, 2004, "화교 교육과 젊은 세대의 문화적 감성", 「연속기획/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구조5-화교」
- 오심화, 1999, "한국화교 교육의 실태와 전망", 서울 중국학센터 화교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 심포지움 발표논문
- 윤인진, 1997, "중앙아시아 한인의 언어와 민족정체성", 한국사회학 후기 사회학대회 『도시/인구』 분과에서의 발표논문
- 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 이윤희, 2004, "동북아시아 인천거주 화교의 인권실태 및 정체성" 『담론』 제34집, 5호
- 이수미, 2007, "강신재의 「회화」 고찰-여성인물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동

국대학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재광, 2004, "한국화교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화교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30집

이재유·허여호, 2006, "화교기업의 발전과 경영특징", 「中蘇研究」, 통권 110호

이재정, 1993, "한국의 화교 거주지 연구-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우, 2003, "한국화교의 현지화와 네트워크 구상",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형석, 2006, "중국정부의 화교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이효재·박은경, 1979, "한국화교 및 화교 이동에 관한 연구", 산학협동재단연구

임봉길, 1994, "동북시베리아지역 통구스족의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의 형성과 변화", 지역연구 제3권 4호

임채완, 1999,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정체성과 민족의식", 『중앙아시아한인 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총서-⑤

임채완·김경학, 2002, "중국 연변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조사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1호

임채완, 2006, "한국화교의 역할과 발전방향" 『한국화교의 역할과 발전 방향』 제11권 제4호

임채완·박동훈, 2006, "한국 화교의 역할과 발전방향", 한국동북아논총 제41집

제성호, 2001, "한국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문제점", 국제인권법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 홍승직, 1994, "사회발전과 한국인의 가치문제", 일신사, p.139
- 장수현, 2001, "한국 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인권법』 제4호, 국제인권법협
- 정영훈, 2002,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 문제", 『在外韓人研究』
- 정호영, 2001, "민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1, "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역사적, 이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사회학콜로키엄 발표논문
- 조동제, 2003, "한국화교의 현지화와 네트워크구상",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 조정남, 1998, "중국인의 민족상황과 화교집단", 『민족연구』 한국민족연구원 제1집
- 조홍윤, 1997, "한국화교의 고통과 고민" 『문족과 문화』 제1호
- 최예린, 2002, "재한 화교 유아의 한국 생활 적응과정" 중앙대학교 유아 교육학과 석사논문

## 중국 문헌

### <단행본>

- 安東尼·D·史密斯, 2002, 龔維斌·良警宇編譯, 『全球時代的民族與民族主義』, 中央編譯出版社
- D·G·E·霍爾, 1982, 『東南亞史』, 中山大學 東南亞歷史研究所編譯, 商務印書館

- 郝時遠, 2002, 『海外華人研究論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志輝・羅平, 2005, 『SPSS for Windows統計分析教程(第2版)』, 電子工業出版社
- 潘 翎, 1998, 『海外華人百科全書』, 華裔館研究員 崔貴強編譯, 香港三聯書店
- 喬 偉, 1985, 『新編法學辭典』, 山東人民出版社
- 僑務委員會, 2007, 『中華民國九十五年僑務統計年報』, 中華民國僑務委員會
- 秦裕光, 1983, 『旅韓六十年見聞錄』, 中華民國韓國研究會
- 孫廣華, 1989, 『實用法學辭典』, 韋海出版社
- 庄國土, 2001, 『華僑華人與中國的關係』, 廣東高等教育出版社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安煥然, 2003, "從「華僑」一詞的源起詮釋看海外華人的華僑性格"「本土與中國:學術論文集」原載於「大馬青年」第九期
- 蔡蘇龍・牛秋實, 2002, "'華僑'・'華人'的概念與定義: 話語的變遷"「雲夢學刊」2002年06期
- 何芳川, 2003, "近代華僑與中華文明"「華僑華人歷史研究」2003年04期
- 陸益龍, 2005, "同化抑或認同的多元化?-韓國華僑的經驗驗證",「湖南社會科學」5月期
- 幕德政, 2003, "朝鮮華僑教育的現狀",「延邊大學學報」第36卷第二期
- 時東陸, 1995, "Strength And Identity"「華夏文摘」
- 王愛平, 2006, "印尼華裔青少年的身分認同與國家認同-華僑大學華文學院(集美)印尼華裔學生的調查研究"「武漢大學學報」56集2號
- 王光華, 2002, "今日韓國華人"「僑園」僑園雜誌社 2002年第6期總第67期

- 王賡武, 1994, "東南亞華人的身份認同之研究", 「中國與海外華人」香港商務印書館
- 詹小洪, 2004, "韓國華僑的今昔", 「炎黃春秋」2004年7期
- 張睿壯・劉豐, 2004, "關於幾個重要國際關係術語中文譯法的討論", 「世界經濟與政治」2004年第10期
- 朱慧玲, 1996, "獨具特色的韓國華僑社會", 「華聲」1996年第6期
- 莊國土, 2002, "略論東南亞華族的族群認同及其發展趨勢", 「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2年03期

## 영어 문헌

- Alexander Wendt, 1997,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 Paul Viotti and Mark Kauppi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Pluralism, Globalism and Beyond*, Boston: Allyn and Bacon
- \_\_\_\_\_,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224.
- Jean Phinney,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
- Laurence J. C. Ma & Carolyn L. Cartier, 2003, *The Chinese Diaspora: Space, Place, Mobility, and Identit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Chai Mun Lee, 2004, "The Demystification of Ethnic Identity: Ethnic Koreans in Uzbekistan", 한국동북아학회



- Lynn Pan, 1998, The Encyclopedia of the Chinese Overseas. Singapore: Archipelago Press.
- Min Zhou, 2005, The Chinese Diaspora and International Migration. Social Transformations in Chinese Societies
- Tamotsu Shibutani & Kian Kwan, 1965, "Ethnic Stratification: A Comparative Approach",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omas Hylland Eriksen, 1993, "Ethnicity & Nationalism—Anthropological Perspectives", London: Pluto Press.
- John Hutchinson & Anthony D. Smith, 1996, "Ethnic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기타 자료>

##### 한국사이트

- <http://www.immigration.go.kr> 출입국관리국
- <http://www.seoulchinatown.com> 서울 차이나타운
- <http://www.ichinatown.or.kr> 인천 차이나타운
- <http://www.crask.or.kr> 한국서울화교협회
- <http://www.ocac.or.kr> 교무위원회
- <http://cafe.naver.com/koreanchinese.cafe> 한국화교인권포럼
- <http://www.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
- <http://kin.naver.com/knowhow> 지식IN
- <http://blog.naver.com>
- <http://www.kona.or.kr>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왕은미,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21)

"한국화교, 그 삶과 정체성의 현주소" 2007년 06월

### 중국사이트

<http://www.wcbn.com.sg> 世界華商網絡

<http://www.chinaqw.com.cn> 中國僑網

<http://www.hxuc.com> 華夏聯通 世界華僑華人社團聯合總會門戶網

<http://www.shhc.org.cn/page/Index.aspx> 世界華人華僑總會

<http://hqhr.jnu.edu.cn> 暨南大學圖書館華僑華人文獻信息中心

<http://www.tecn.cn/academic/index.php> 天益學術網

<http://big5.xinhuanet.com/gate/big5/www.xinhuanet.com/overseas/wywp.htm>  
新華網華人華僑版

### 대만사이트

<http://www.ocac.gov.tw> 中華民國僑務委員會

<http://zh.wikipedia.org/wiki> 維基百科

<http://www.edu.tw> 台灣教育部

<http://www.studyintaiwan.go.kr> 駐韓國台北代表部文化組

<http://tw.knowledge.yahoo.com/question/?qid=1607041700083>

Study on Identity of Korean Huaqiao  
- The case of Korean Huaqiao in Busan

Yin Ni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 Area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Huaqiao (Overseas Chinese) is one of the largest diasporic groups in the world. Huaqiao exercise strong influence on ASEAN economy as well as that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y contrast, the Huaqiao in Korea are economically and socially subordinate. Unlike other Huaqiao, whose ancestors were from the coastal region in southern parts of China and who were merged into the host countries due to the course of naturalization, the Korean Huaqiao, among whose population approximately 90% were originally from Shandong Province, obtained Taiwanese nationality. During the period of the Cold War, the Korean Huaqiao severed their relations with China, whilst the Taiwanese government invited Huaqiaos along by promoting an anti-PRC ideological campaign. Ye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has been increasing an influence on the Korean Huaqiao, since 1992 when the PRC restored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The Korean Huaqiao are eager to enhance their business activities in China's booming economy and its capitalization.

Moreover, the new policy ado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has encouraged the Korean Huaqiao to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They began to identify themselves as "Chinese Korean", rather than emphasizing their association with their homeland in China.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how the Korean Huaqiao present 'multiple identities', and how they describe their characteristics as diasporic community. The author analyzes the shifting identity of the Korean Huaqiao in Busan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the thesis uses both

written material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hich the author designed and carried out. The literature study includes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news information published by both Chinese and Korean governments as primary sources of the analysis. The thesis also includes the analysis of academic papers and Internet materials produced by both Korean and Chinese researchers.

The questionnaire survey focuses on the following six subjects, when investigating the Korean Huaqiao's social position and ethnic identity: Awareness of huaqiao's national consciousness, sources of their identity as minority group, China/Taiwan's Huaqiao policy, a social position acknowledged by the Korean government, language, and culture.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00 people in the area of Busan in September 2007. The data are processed and analyzed by using SPSS statistics program, in which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and analysis of variances are used. The result shows that the Korean Huaqiao have maintained good relationship among their community members and also are proud of their Chineseness. Most of the Huaqiao population in Busan have integrated into society and maintained good relationship with Koreans. Yet, they remain pessimistic about their success in Korea society. They believe the Korea government does not provide an equal opportunity with foreign residents. The Korean Huaqiao have maintained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as sources of their ethnic identity. However,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of the Korean Huaqiao have been assimilated into Korea society. They are in the process of Koreanization. The thesis presents how the young generation in Busan tend to integrate Korean society more intensively than the previous generations did.

This discussion is supported by the increasing rate of intermarriage between Huaqiao and Korean.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of the Busan Huaqiao may consider to obtain Korea nationality if it was necessary. They begin to absorb their "Koreanness" as parts of their identity. By contrast, many second generation of the Huaqiao hold strong sense of attachment to their hometown in China and reconfirm their Chinese identity by paying a visit to their homeland.

The Korean Huaqiao have been constructing "Chinese-Korean" identity. On

the one hand, they maintain Chinese tradition and culture. On the other hand, they attempt to integrate themselves into their host society. The Korea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the Korean Huaqiao in society and provide them with a support for facilitating their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Key words: Korean Huaqiao, overseas Chinese, minority, diaspora, identity, Huaqiao policy>



[부록-1]

한국 화교의 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한국어)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화교 정체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저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귀하가 답변한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본 설문지는 4페이지며, 약 1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연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하시거나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안에 글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I. 인적 사항

1. 연령: (            세)
2. 성별: ① 남            ② 여
3. 학력: 초, 중, 고, 대, 대학원졸
4. 직업: (            )
5. 다닌 학교가 화교학교인지 한국학교인지를 표시해주십시오.

| 다닌 학교 | 화교학교 | 한국학교 | 기타(외국인학교 등) |
|-------|------|------|-------------|
| 소학교   | (1)  | (2)  | (3)         |
| 중학교   | (1)  | (2)  | (3)         |
| 고등학교  | (1)  | (2)  | (3)         |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녔다면 어느 곳에 있는 대학입니까? (대만과 중국의 경우-省(성) 혹은

| 다닌 학교 | 대만  | 한국  | 중국  | 기타  |
|-------|-----|-----|-----|-----|
| 대학    | (1) | (2) | (3) | (4) |
| 대학원   | (1) | (2) | (3) | (4) |

市(시), 한국의 경우-市(시) 혹은 道(도), 기타지역-州(주) 혹은 도시 이름적을 것)

6. 원적(할아버지 출신지역): ① 대만 ② 산둥성 ③ 기타지역(            )

II. 정체성의 주관적 인식

(민족 의식)

1. 귀하는 한국 내 화교간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가깝게 지낸다    ②어느 정도 가깝게 지낸다    ③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④전혀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⑤모르겠다(무응답)
2. 귀하는 한국 내 화교들이 중화민족으로서 얼마만큼 긍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있다    ②어느 정도 긍지를 가지고 있다  
③별로 긍지를 갖고 있지 않다    ④전혀 긍지를 갖고 있지 않다    ⑤모르겠다(무응답)
3. 귀하는 화교간의 연대성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민족의식    ②언어    ③동일지역 거주    ④관습    ⑤기타

**(소수민족 의식)**

4. 귀하는 화교와 한국인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원만하다    ②대체로 원만하다    ③대체로 불편하다  
④매우 불편하다    ⑤모르겠다(무응답)
- 4-1. (4번에서 ③번 혹은 ④번에 답한 사람만 답하세요)  
화교와 한국인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한국이 화교를 차별 대우하기 때문에  
②화교들이 한국에 동화(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③서로의 민족감정이 달라서  
④서로 문화교류 기회가 적어서  
⑤기타 (적어주세요: )
5. 귀하는 화교와 한국인 및 기타 종족과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찬성한다    ②대체로 찬성한다    ③대체로 반대한다  
④매우 반대한다    ⑤모르겠다(무응답)
6. 귀하는 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매우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무응답)
- 6-1. (6번에서 ①, ②번에 답한 사람만 답하세요)  
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한국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②화교들의 능력과 교육열 때문에  
③화교사회의 단결과 상호협력 때문에  
④기타(적어주세요: )

6-2. (6번에서 ③, ④번에 답한 사람만 답하세요)

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한국사회가 화교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 ②화교들의 능력, 교육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 ③화교사회의 단결과 상호협력의 기회가 부족하므로
- ④기타(적어주세요: )

7. 귀하는 한국의 화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화교 사회 발전을 촉진 하였다
- ②화교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 ③현재는 차별 대우를 하지만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④기타( )

7-1. 귀하는 한국에서 당하거나 알고 있는 차별 대우를 써주세요.

(교육, 취업, 승진, 공공기관, 은행, 상업적인 서비스 등)

**(중국·대만의 화교정책 인식)**

8-1. 귀하는 중국 정부가 한국 화교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②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
- ③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④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 ⑤모르겠다(무응답)

8-2. 귀하는 대만 정부가 한국 화교들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②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
- ③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④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 ⑤모르겠다(무응답)

9-1. 귀하는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화교를 지원해준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많이 지원하고 있다      ②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      ③별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
- ④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      ⑤모르겠다(무응답)

9-2. 귀하는 대만 정부가 얼마만큼 화교를 지원해준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많이 지원하고 있다      ②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      ③별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
- ④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      ⑤모르겠다(무응답)

10. 한국화교와 모국(중국/대만)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모국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모국방문 지원      ②화교에 대한 교육적 지원      ③이중국적 허용  
 ④한국과 중국(대만)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추진      ⑤화교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철폐  
 ⑥자유로운 취업과 투자기회 보장      ⑦기타

**(국가 인식)**

11. 귀하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습니까?

① 예 (11-1로)      ② 아니요 (11-2로)

- 11-1.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순서대로)

①화교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②경제적으로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③자녀(또는 본인)의 교육을 위해서      ④그 나라가 좋아서  
 ⑤이미 그곳에 가있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 )

- 11-2. 한국에서 계속 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①한국이 좋아서      ②이미 한국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서  
 ③그곳에 가도 차별이 있을 테니까      ④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서  
 ⑤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 )

12. 귀하는 귀화를 한다면 언제 했습니까?

① 귀화를 하지 않았다(12-1로)      ② 귀화를 했다 ( ) 년) (13로)

- 12-1. 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해주세요)

① 한국이 싫다  
 ② 어차피 한국을 떠날테니 불필요하다  
 ③ 대만국적 유지가 사업상 불가피하다  
 ④ 한국 국적으로 살면 불편하다  
 ⑤ 중국사람이므로 반드시 중국(대만) 국적을 지켜야 한다  
 ⑥ 귀화를 안 하는 것이 (본인 또는 자녀가)한국의 대학진학에 유리하다  
 ⑦ 귀화를 하면 화교 정체성이나 문화를 잃을 것 같다  
 ⑧ 귀화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⑨ 화교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된다  
 ( )

- 12-2. 귀하는 언젠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습니까?



4. 귀하는 중국어를 현재보다 더 잘 구사하고 싶습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4.1 만약 4문항에서 ① 혹은 ② 응답을 선택했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모국어를 지켜가야 하기 때문이다 ②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③ 앞으로 중국에서 공부하기(살기) 위해서 ④ 앞으로 대만에서 공부하기(살기) 위해서 ⑤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 ⑥기타( )

(문화)

5. 중국 음식을 어느 정도 먹습니까?

- ① 중국 음식만 먹는다  
② 한국 음식보다 중국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③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똑같이 먹는다  
④ 중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⑤ 중국 음식을 전혀 안 먹는다

6. 귀하 가정에서는 다음의 중국 전통 명절을 어느 정도 지냅니까?

해당란에 √표 하세요.

|        | 항상 잘 지낸다 | 되도록 지낸다 | 그저 그렇다 | 가끔 지낸다 | 전혀 안 지낸다 |
|--------|----------|---------|--------|--------|----------|
| 春節     |          |         |        |        |          |
| 秋夕(추석) |          |         |        |        |          |
| 端午(단오) |          |         |        |        |          |

7. 귀하는 중국 전통 명절에 어떤 음식을 많이 드십니까?

- ① 중국 전통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② 한국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③ 한식이던 중국식이던 상관없이 먹는다

8. 귀하는 가정에서 어느 나라 TV방송을 주로 보십니까?

- ① 중국방송 ② 대만방송 ③한국방송 ④ 기타( )

9. 귀하는 노래방에서 어느 나라 노래를 주로 부르십니까?

- ① 중국가요 ② 대만가요 ③한국가요 ④ 기타( )

10. 귀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나라를 응원합니까?(순서대로)

- ① 중국 ② 대만 ③ 한국  
제1순위\_\_\_\_\_ 제2순위\_\_\_\_\_ 제3순위\_\_\_\_\_



[부록-2]

## 關與韓國華僑認同的調查問卷內容(中國語)

您好！

感謝您抽出寶貴時間協助填寫此次有關韓國華僑身份認同的問卷調查。本次調查採用無記名方式填寫，數據僅用於統計分析，對所有信息保密，請您根據自己的實際情況如實填寫。問卷共4頁，大約需要10分鐘完成。

再次衷心感謝您的合作。謝謝！

請在相應的選項上劃“√”，在“( )”內填寫內容。

### I. 個人情況

1. 年齡: (      歲)
2. 性別: ① 男      ② 女
3. 學歷: 小學, 中學, 高中, 大學, 碩士, 博士
4. 職業: (      )
5. 請標示出學校類型

| 學校 | 華僑學校 | 韓國學校 | 其他(外國人學校等) |
|----|------|------|------------|
| 小學 | (1)  | (2)  | (3)        |
| 中學 | (1)  | (2)  | (3)        |
| 高中 | (1)  | (2)  | (3)        |

大學和大學院的學校所在地

| 學校   | 台灣  | 韓國  | 中國  | 其他  |
|------|-----|-----|-----|-----|
| 大學   | (1) | (2) | (3) | (4) |
| 研究生院 | (1) | (2) | (3) | (4) |

請寫出學校所在台灣,中國的(      )省(      )市,韓國(      )道(      )市,其他國家(      )

6. 祖籍: ① 台灣 ② 山東 ③ 其他(      )

### II. 認同的主觀認識

(民族認識)

1. 您怎樣認為韓國華僑間的親密感程度?  
①十分親密    ②有點親密    ③不是十分親密    ④不親密    ⑤不知道



2. 您認為韓國華僑對中華民族有多少自豪感？

- ①十分自豪 ②有點自豪 ③不是十分自豪 ④不自豪 ⑤不知道

3. 您認為加強華僑世代性的主要因素是什麼？

- ①民族認識 ②語言 ③集聚居住 ④習俗 ⑤其他

**(少數民族認識)**

4. 您認為華僑和韓國人的關係如何？

- ①十分和睦 ②大體和睦 ③有點不融合 ④十分不融合 ⑤不知道

4-1. (4題選擇③和④的應答者請回答此題)

您認為華僑和韓國人之間不融合的理由是什麼？

- ①韓國對華僑不平等的待遇 ②華僑沒有同化於韓國社會 ③不同的民族感  
④雙方文化交流少 ⑤其他(請寫出: )

5. 您怎樣看待華僑和韓國人或其他民族通婚？

- ①十分贊成 ②大體贊成 ③大體反對 ④十分反對 ⑤不知道

6. 您認為華僑在韓國成功的可能性大嗎？

- ①可能性大 ②一般 ③不大 ④沒有可能 ⑤不知道

6-1. (6題中選擇①, ②的應答者請回答此題)

在韓國華僑成功的可能性大的理由是什麼？

- ①與韓國社會良好的關係 ②華僑能力和教育水平高 ③華僑社會的團結及相互合作  
④其他(請寫出理由: )

6-2. (6題中選擇③, ④的應答者請回答此題)

華僑在韓國成功的可能性小的理由是什麼？

- ①韓國社會對華僑的不平等待遇 ②華僑能力和教育不足 ③華僑社會的團結及  
相互合作不足 ④其他(請寫出理由: )

7. 您如何評價韓國的華僑政策？

- ①促進了華僑社會的發展 ②華僑受到不平等待遇 ③雖有差距, 但向著積極的  
方向努力 ④其他( )

7-1. 您認為華僑受到不平等待遇的地方在哪些方面？

(如教育,就業,升職,公共機關,銀行,服務業等)\_\_\_\_\_

**(對中國・臺灣華僑政策認識)**

8-1. 您如何評價中國政府對韓國華僑的關心程度？

- ①十分關心 ②有點關心 ③不是十分關心 ④不關心 ⑤不知道

8-2. 您如何評價台灣政府對韓國華僑的關心程度？

- ①十分關心 ②有點關心 ③不是十分關心 ④不關心 ⑤不知道

9-1. 您如何評價中國政府對韓國華僑的支援？

- ①支援很多 ②支援一些 ③支援很少 ④根本沒支援 ⑤不知道

9-2. 您如何評價台灣政府對韓國華僑的支援？

- ①支援很多 ②支援一些 ③支援很少 ④根本沒支援 ⑤不知道

10. 您認為要加強韓國華僑同祖國(中國/台灣)間的紐帶關係，中國/台灣政府必須採取什麼政策？

- ①祖國訪問的支援 ②對華僑教育的支援 ③認可雙重國籍  
④促進韓國同中國/台灣的地方政府結締友好城市 ⑤撤銷對華僑法律及制度上的  
不平等 ⑥自由就業和保障投資機會 ⑦其他

**(國家認識)**

11. 您想移民到其他國家嗎？

- ①想(接11-1) ②不想(接11-2)

11-1. 想移民去其他國家的理由是什麼？(請按順序填寫)

- ①不想忍受對華僑的不平等待遇 ②在經濟上獲得更好的發展機會  
③子女(本人)的教育 ④喜歡想去的移民國 ⑤和已經移民去的親人一起生活  
( )

11-2. 在韓國繼續生活的理由是什麼？(請按順序填寫)

- ①喜歡韓國 ②同韓國人沒什麼差別 ③其他地方也存在差距

- ④不原意同在韓國生活的親人分開      ⑤在韓國經濟已趨於穩定  
( )

12. 您是否已經加入韓國國籍？如果已經加入請問是何時加入的？

- ①沒有加入韓國國籍(接12-1題)      ②已經加入了韓國國籍(加入時間      年)  
(接13題)

12-1. 您沒加入韓國國籍的原因是什麼？(請按順序選擇3個)

- ①不喜歡韓國      ②早晚要離開韓國      ③持台灣國籍是事業的需要  
④持韓國國籍不方便      ⑤中國人一定要保留中國(台灣)國籍  
⑥沒入韓國國籍有利於(子女或本人)在韓國升入大學  
⑦入韓國國籍的話，會丟失華僑認同及文化      ⑧入韓國國籍手續繁瑣  
⑨擔憂被華僑社會孤立  
( )

12-2. 是否有加入韓國國籍的打算？

- ①有      ②沒有      ③不知道

13. 加入韓國國籍的原因是什麼？(請按順序選擇3個)

- ①喜歡韓國      ②在韓國生活遲早要入籍      ③持台灣或中國國籍不方便  
④爲了事業方便      ⑤爲接受韓國教育就不可避免要入籍      ⑥不想受到不平等待遇  
⑦已習慣了周邊環境，對入籍的必要性沒有感覺  
( )

14. 您對您的子女加入韓國國籍如何看待？

(未婚者可設想一下今後自己如何看待子女的入籍問題)

- ①完全贊成      ②贊成      ③無所謂      ④反對      ⑤十分反對

15. 您對取得中國（中華人民共和國）國籍如何看待？

- ①完全贊成      ②贊成      ③無所謂      ④反對      ⑤十分反對

16. 子女(未婚的情況下本人)結婚的話您對子女配偶(本人配偶)的民族偏愛是哪個？  
請按順序選擇。

①韓國華僑 ②台灣人 ③大陸人 ④韓國人 ⑤其他國家華僑 ⑥其他( )  
第一位\_\_\_\_ 第二位\_\_\_\_ 第三位\_\_\_\_ 第四位\_\_\_\_ 第五位\_\_\_\_ 第六位\_\_\_\_

### III. 認同的客觀特征

#### (語言)

1. 您認為哪種語言是您的母語？

①韓國語 ②中國語 ③其他( )

2. 您在家裡使用中文程度如何？

①只用中文 ②中文比韓語用的多 ③中文和韓語用的差不多  
④韓語比中文用的多 ⑤只用韓語

3. 您的中文能力如何？

①很好 ②好 ③一般 ④不好 ⑤不會

4. 您想提高您的中文水平嗎？

①十分想 ②想 ③一般 ④不太想 ⑤不想

4.1 在4題中選①或②的應答者，您的理由是什麼？

①母語要說好 ②求職 ③以後在中國學習/工作 ④以後在台灣學習/工作  
⑤父母要求 ⑥其他( )

#### (文化)

5. 您吃中餐的比率？

①只吃中餐 ②中餐比韓國料理吃的多  
③中餐和韓國料理吃的一樣多 ④韓國料理比中餐吃的多 ⑤不吃中餐

6. 您的家庭過中國傳統節日嗎？請在相應的框內劃“√”

|    | 常過 | 盡可能地過 | 一般 | 偶爾過 | 不過 |
|----|----|-------|----|-----|----|
| 春節 |    |       |    |     |    |
| 中秋 |    |       |    |     |    |
| 端午 |    |       |    |     |    |

7. 您在過中國傳統節日時，哪一種食品吃的多？

①中國傳統食品 ②韓國食品 ③韓國，中國食品吃的差不多

8. 您在家里多數情況下看哪個國家的電視節目？

①中國    ②台灣    ③韓國    ④其他(            )

9. 您在練歌廳點唱哪國歌曲多一些？

①中國    ②台灣    ③韓國    ④其他(            )

10. 您在觀看體育比賽時支持哪個隊？(請按順序填寫)

①中國    ②台灣    ③韓國

第一位(        )    第二位(        )    第三位(        )

